

2023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모의국무회의 가이드북



주최 :  국민대학교 | 통일교육사업단
한반도미래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

후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2023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통일미래”를 준비하다.



Contents

I.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1. 개요		06
· 국무회의란?		06
· 통일모의국무회의란?		07
2. 통일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08
팀 구성하기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주제 선정하기		
직책 부처 설정하기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담당 수행 직책별로 토론 쟁점 찾아내기		
직책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주제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3. 대본 작성 요령		12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대본 작성의 개요 정하기		
대본 표지와 내지 내용 보기		
대본 표지와 내지 샘플 보기		
4. 통일교육원 발간 참고자료		14
5. 통일모의국무회의의 안건의 예 (2015~2022년 수상팀)		15

II.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1. 경연 목적		20
2. 경연 주제		
3. 참가 신청 방법		
4. 시상 내역		
5. 심사 기준		
6. 대회 일정		
7. 문의 및 상담		
8. 예선 및 결선 상세일정		22
9. 참가신청서 양식		24

III. 통일 모의국무회의 기획안 및 대본 예시	1. 기획안 예시	28
	2. 대본 예시 1	31
	3. 대본 예시 2	50

IV.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1. 최우수상 수상 수기	82
	2. 우수상 수상 수기	84
	3. 장려상 수상 수기	86

V.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대면 경연)	92
--	----

VI.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비대면 경연)	96
--	----



“통일미래”를 준비하다



I

누구나 쉽게 경연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I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TIP 1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선 국무회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아래 국무회의 의사규칙을 숙지하고 대본에 반영해야 합니다.

1. 개요

① 국무회의란?

가. 대통령이 하는 일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정책을 심의하며 의결하는 최고정책 심의기관입니다.

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정책이란?

- (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 (2) 선전 및 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대통령령안
- (4) 예산 및 결산, 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 (5) 대통령의 비상조치 또는 계엄과 그 해제
-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 (7) 국회의 해산
- (8) 국회의 임시회의 집회의 요구
- (9) 영전수여
- (10) 사면 및 감형과 복권
- (11) 행정 각부간의 권한 확정
- (12) 정부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 (13) 국정처리상황의 평가 및 분석
- (14) 행정 각 부의 중요정책 수립과 조정
- (15) 정당해산의 제소
- (16)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에 대한 심사
- (17) 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검찰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및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
- (18) 기타 대통령과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등

다.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이며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각 부처 장관 외)이 국무회의의 구성원입니다.

라. 국무회의를 여는 진행순서는 개회-국민의례-개식사-주요안건 토의 및 처리-폐회입니다.

마. 국무회의에서 모든 국무위원의 자격은 동등하며 다수결에 의한 합의 의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 구성원 1/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사. 결정한 사항들을 추진합니다.

② 통일 모의국무회의란?

가. 모의국무회의란 실제 국무회의 형태를 모델로 하여 학생들이 대통령 이하 각 부처 장관의 역할을 맡아 진행하는 정책 토론회입니다.

나. 주요 정책의 범위는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대한민국입니다.

다.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참여의식으로 통일 정책을 발굴합니다.

라. 정책을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통일에 대한 관심과 생각의 수준을 높입니다.

마. 다른 부처 간의 협의나 논쟁을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일의식을 지닙니다.

바. 모의국무회의를 완성하면서 국가의 통일정책에 참여해 본 주인공으로서의 자부심과 성취감을 체득합니다.

TIP 2

통일 모의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들을 체크 리스트를 작성하고 준비하면 보다 원활하게 대회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TIP 3

통일 전,후의 분단, 통일, 평화의 대한민국을 가상하는 만큼, 통일 편익에 중점을 두어 안건을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통일 모의국무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기본 준비

① 팀 구성하기

- 동아리 혹은 함께 공부하는 학과 동료들과 마음을 합하여 모의국무회의의 참여를 위해 팀을 구성합니다.
팀원의 인원은 대통령을 포함하여 6명에서 13명까지 가능합니다.
- 행사 참여 및 진행이 수월할 수 있도록 팀 대표(팀장)를 선출합니다.

②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건 선정하기

안건의 전개

총 시간이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 장관이 개별적으로 각자의 정책을 발표하기보다는 여러 부처가 협업하여 정책을 도출할 수 있는 안건을 선정하여 토의하는 형식으로 전개하십시오.

관련 자료

안건 선정 관련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통일 미래 비전과 관련된 자료를 찾거나, 2014 통일문제 이해(통일부 통일교육원 발간), 통일연구원, 국립외교원(통일한국 2040 보고서), 현대경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등 연구기관과 DBpia, 국회도서관 등의 논문자료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통일교육원 발간자료는 붙임 참조)

2015년~2022년에 실시한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진대회의 우수작을 참조하여도 좋습니다. <15~17페이지 참조 혹은 통일모의국무회의의 카페/<http://cafe.daum.net/unifi2016>에서 매년도 길라잡이 참조>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슬로건은 <통일미래를 준비하다>입니다.

준비 포인트

통일 전후, 급격한 변화에 직면한 통일 한국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통일된 한국은 수많은 가능성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 국무회의에서는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과 동시에 통일한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편익들을 최대한 활용할 새로운 정책들이 논의되어야 하며, 또한 국제적인 정세 변화에 따른 외교 정책들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TIP 4

아래 자료를 통해
통일이 가져다 주는 국내외
적 편익을 알아보고,
통일 모의국무회의 토의 안
건 선정에 참고해 보세요.

통일의 국내적 편익

인구 강국 : 통일로 저출산·고령화·생산가능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

- UN ‘세계 인구 전망’에 따르면 통일이시 생산가능인구가 전보다 4% 증대(약 20만여명)하고 내수 및 노동시장의 동시 확대가 가능
-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통일 후 남북 병력 감축으로 약 133만명 이상의 생산가능인구 확보가 가능

군비 감축에 따른 재정효율성 증대

- 현대경제연구원(2010)에 따르면 통일 시 국방비 절감효과는 2013년~2050년까지 누적 총 1조 8,862억\$
- 국방비 절감효과는 연구별로 최소 246조원(조동호, 1997)~최대 1조 8,862억(현대연구원, 2014)까지 편차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산업 생산성 증대

- 통일 후 북한의 노동 생산성 102.9% 증대 예측(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신용등급이 상향되는 통일한반도(조선일보, 2014.1.6)

- 현재 남한 대북리스크로 신용등급 평균 2등급 하향화
-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금융회사는 “남북 통일 후 5년 안팎으로 국가 신용등급은 한두 단계 이상 오를 것”이라고 전망
- 통일로 한국 신용등급이 인상되면 이자비용이 크게 감소하여 재정적 효율성 증대

고용 창출

- 국회예산정책처(2014)에 따르면 통일 후 40년간 연평균 65만 6천명, 총 2,953만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발생
- 한국정치학회(2014)는 통일 후 10년간 연간 119만명, 총 1,190만명 취업유발 효과를 예측
- 통일 후 북한 3차산업 발달은 360만명의 고용창출효과 유발(통일연구원, 2014)

2,600만 관광대국(조선일보, 2014.1.14)

- 현대경제연구소(2014)에 따르면 통일한반도에는 매년 2,600만 이상의 관광객 방문 예상
- 관광객 유입을 통해 약 60만명의 취업유발효과도 발생

자원 대국, 통일한반도

- 지하자원 국내 조달로 연간 153.9억\$ 절감 효과(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4)

통일한반도의 안보적 편익 : 안보불안의 근본적인 해소

통일한반도의 인도적 편익

- 이산가족 문제의 해소
- 북한주민 인권 문제의 해소
- 냉전 청산으로 인한 사회갈등비용 절감액은 188조원(조선일보, 2014.1.6)

통일한반도의 문화적 편익

-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유네스코 등재 문화재는 통일 전 10건 (세계 21위)에서 12건 이상(19위)으로 상승될 것으로 예측
- 현대경제연구원(2014)에 따르면 2050년 통일 시, 하계올림픽에서 세계 5위 이내의 성적을 거둘 것으로 예측

통일의 국제적 편익

통일한반도·중·일·러 동북아경제공동체 탄생

- 조선일보·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에 따르면, 2040년 동북아 경제공동체는 NAFTA, EU를 제치고 세계 1위 경제권으로 발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탄생

-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통해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형성

안보적 편익: 동북아 평화공동체 형성

- 한반도 통일로 핵무기 없는 세계의 출발점

규범·문화적 편익

- 통일은 민주주의와 복지, 인권 등 인류보편적 가치 확산에 기여
-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출발점이자 유라시아와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사람, 물자, 문화가 융합되어 동아시아 신문화공동체 건설의 주역이 될 것

위 내용을 바탕으로 한 통일 모의국무회의 정책 안건의 예 -

한-유럽간 대륙철도 증설 10개년 계획

백두산 관광 자원 개발단 선발 정책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랜드마크로서의 평양 유엔사무국 운영 정책

동북아 농업시장 발전을 위한 농축산업 지원 정책 (수상 주제의 예)

폐 군수 공장을 TCA(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수상 주제의 예)

정책 안건 선정이 모의국무회의 개최의 주축이 되며
정책 심의 및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근간을 이룹니다.

TIP 5

현 정부의 주요 직책 부처가 하는 일을 살펴보면 선정된 주요 정책에 합당한 부처를 선정하기 쉬워 집니다.

TIP 6

팀원들의 성격과 재능을 고려하여 각각의 수행 직책을 결정하면 훨씬 흥미롭고 사실적인 모의국무회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TIP 7

각자 발표할 정책을 안건으로 정리하면 토론 쟁점을 찾고 대본을 작성하는 데 용이합니다.

③ 직책 부처 설정하기 (국무위원)

- 구성된 팀의 인원과 국무회의에서 다룰 정책 주제가 결정되면 팀의 인원과 정책의 특성에 맞는 직책 부처들을 설정합니다.
- 팀 구성의 최소 단위는 대통령을 포함하여 6개의 부처입니다.
- 부처는 **기획재정부 / 국토부 / 통일부 / 법무부 / 외교부 / 문화체육관광부 / 고용노동부 / 환경부 / 국방부 / 보건복지부 / 교육부 / 여성가족부 / 해양수산부 / 미래창조과학부 / 안전행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등이며 직책 부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지만 통일 이후의 상황이라면 직책 부처명은 자율적으로 변경 가능하며 변경할 경우엔 현재의 부처 이름을 병기합니다.
- 중요도에 따라 현 부처의 업무를 분리하여 독립시키거나 신설 부처를 창설할 수 있습니다.

④ 각 팀원의 수행 직책 결정하기 (역할 나누기)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역할을 나눕니다.
- 각 정책 부처의 목적과 성격을 자세하게 조사합니다.
- 영상, 음향 효과를 활용하여 각각의 특성에 따라 수행 직책의 임무를 표현합니다.

⑤ 담당 수행 직책별로 선정 주제에 대한 부처별 안건을 작성

- 선정한 주제의 주무부처는 간략히 모의국무회의의 안건을 작성합니다.
- 주무부처가 아닌 부처라도, 해당 안건에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그 부처의 입장까지 담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목차에 '유관부처 협의 결과' 등의 목차로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1개의 안건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주무부처가 총괄하여 정리, 안건을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 안건의 분량은 8~10페이지 이상으로, 통일 이전 혹은 통일 이후의 상황을 가정하여 해당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정책추진 원칙 및 고려사항, 대응방안 등을 담습니다. 이 목차는 예시일 뿐, 자유롭게 작성하여 정책과 관련한 제언을 담으십시오.
- 작성한 안건은 대본에 '요약'으로 수록하여 (2페이지 내외) 함께 제출하십시오.

⑥ 부처간 토론 쟁점을 찾아내어 갈등과 대립을 현실감 있게 표현하기

- 선정된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연관성과 현실적인 문제점을 모색합니다.
-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의 찬성과 반대 의견을 구성합니다.
- 한 가지의 정책이 수행되기 위해서는 다른 부처 간의 갈등과 대립이 치열해지기도 합니다. 직책 부처마다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객관적 사례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효과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설득력 있는 눈빛과 호소력 있는 제스처를 적절히 사용합니다.

⑦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안건에 대한 정책을 의결하기

- 각각의 부처별 의견과 주장, 갈등과 대립들을 유지시키면서 토의 안건에 대한 정책 결정을 도출하며 긍정적으로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 의결된 정책이 모의국무회의의 기본 목적과 세부 사항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통일된 구성을 기획합니다.

3. 대본 작성 요령

TIP 8

대본 전체 구성이 탄력적이어야만 모의국무회의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① 대본 작성을 위한 기획 회의하기

- 대본 작성을 위해 각 수행 직책별 의견과 주장을 취합합니다.
- 최대 5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몇 개의 안건, 혹은 몇 개의 장면(Scene)으로 모의국무회의를 연출할 지를 토의합니다.
- 대본의 전체적인 흐름은 서론(정책 배경), 본론(정책 심의, 토론), 결론(정책 의결, 결정)을 전제로 합니다.
- 정책 주제의 도입, 정책 주제에 대한 부처별 토론, 정책 주제에 대한 각 부처별 갈등과 반론, 협의, 의결을 위한 대단원으로 구성하여 정책 결정을 도출합니다.
- 기획 회의를 마무리하고 대본 작성을 시작합니다.

TIP 9

서류 전형 후 예선 참가를 위해 연습과 훈련을 거듭하면 서 보다 세련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본에 약간의 수정·첨가는 할 수 있으나 정책 주제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선정된 정책 주제로 예선과 결선을 진행하며 결선에서는 의결된 정책을 발표하고 팀 간 정책 검증 및 논쟁 방식으로 경연대회를 진행합니다.

② 대본 작성의 개요 정하기

- 표지와 내지를 구분합니다.
- 표지에 담을 내용과 내지에 담을 내용을 구성합니다.
- 표지를 포함하여 8~10페이지 이상으로 모의국무회의의 대본을 만듭니다.
(대본 규격의 예 - A4 / 10~11pt / 행간 160 / 상·하 여백 20mm / 좌·우 여백 25mm)
- 대본에는 효과적인 의사전달을 위해 각 국무위원들의 행동, 표정, 몸짓 등의 표현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음향이나 영상물이 제시되는 장면이나 내용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 요약분 (2페이지 이내)의 주요내용을 붙임으로 첨부합니다.

③ 대본 구성 양식

- 표지(1페이지) 기재 내용 :
제목 (통일한국을 디자인하다) 안건 (모의국무회의의 정책 관련 주제)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 팀 대표 연락처 및 제출 날짜
- 내지(8~10페이지 이상) 기재 내용 :
등장인물 (수행 직책 및 팀원 이름)
Chapter (각 Chapter별로 국무회의의 대본 구성화면의 영상이나 음향, 등장인물의 행동 등도 기재)
페이지 넘버링
- 요약(2페이지) : 주요 내용 요약

표지 샘플

“통일미래”를 준비하다.

<2023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대본>

토론 안건 :
팀명 및 팀 대표 이름 :
연락처 (휴대전화) :

년 월 일

내지 샘플

<2023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대본>

- 제목 :
- 안건 :
- 등장인물 (직책부서 포함)
- Chapter 1
- 필요에 따라 Chapter와 Scene별로 대본을 구성합니다.

페이지 기재

4. 통일교육원 발간 참고자료

모든 자료는 통일교육원 홈페이지(www.uniedu.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구분	자료명	발간연도	주요내용	대상
기본교재	통일문제이해 (7장)	매년 발간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 주변정세의 변화와 통일 환경,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남북관계의 전개, 통일미래의 비전과 과제를 설명	교사 및 일반인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통일 필요성의 재인식	2011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통일 필요성의 논리를 재정립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 방안과 과제	2012	남북경제공동체의 개념과 형성과정을 이론적으로 정립하고, 구체적 실행방안 모색을 통해 경제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제고	
	한국과 독일, 분단과 통일 이야기	2012	독일과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관련 역사적 현장이나 상징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 통일과 분단의 의미 조명	
	통일비용보다 더 큰 통일편익	2011	통일비용·분단비용·통일편익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통일편익을 제시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2009	독일의 통일과정과 통일이 된지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분야별 통합현황을 알아보고, 독일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	
영상자료	대륙열차	2013	선조들이 독립의 염원과 의지를 담아 뒀던 시베리아횡단열차를 소개하고 통일은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경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임을 제시하는 영상	고등학생 및 일반인
	통일 꼭 해야 되나요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통일창업 위대한 벤처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비용의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사라지고 다양한 통일편익이 발생함을 설명	
	우리의 선택은 통일입니다.	2012	통일비용, 분단비용, 통일편익 등을 설명하고 통일 미래 비전 및 통일에 가까워지는 방법 소개	
	분단에서 통일로	2012	고등학교 교과 내용을 바탕으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 설명	
	통일, 미래를 위한 약속	2012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 통일의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해 설명하고 통일 미래의 비전과 준비 과제 제시	
	세 친구의 1박 2일	2012	중학생 눈높이에서 분단의 원인과 폐해, 우리의 통일노력, 통일 미래 비전 등 분단과 통일 문제를 1박 2일 형식으로 현장감 있게 설명	

5. 통일 모의국무회의 안건의 예

2015년~2018년 수상팀 안건

시행연도 /주제	팀명	안건
2015년 도약하라! 통일 10년 후의 대한민국	한맥	고구려 역사 문화단지 조성 계획 신의주 국제물류 산업도시화 추진
	UCC	백두산 화산재해 대응전략 한반도 북부지역 권역별 발전 전략
	북키스트	DMZ 평화 클러스터 형성, 실크로드 경제협력 기구 창설, 스마트 시티 구상
2016년 동북아 신 성장동력, 통일한국!	통통배	동북아 농축산업 6차화 추진방안 백두대간 산악관광 진흥 구역 지정 계획
	UNI	아시아 육상 교통망 재생에너지 기반 확립(에너지 지급 계획)
	UNI-DRAW	DMZ 국립공원 조성, 문화교육개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통한 “SOC” 확충
2017년 통일, 그래서 더 행복한 대한민국	U-ZEN	폐군수공장을 TCA(Technology-Culture-Art) 단지로 재건
	D-light	동북아 메디컬 허브 구축 계획
	한울	한반도 서북부지역 실리콘밸리 개발 방안
2018년 평화와 번영, 모두가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	쌍방통행 내일로	토지가치 공유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토지공사의 설치와 파생수익 의 공공적 사용
	고래	통일한국의 정의실현 불법구금시설 인권침해 피해자 보상
	부처, hands up!	통일특별시 구축에 대한 안건 Uni-City Project
	통's	하나가 될 때 비로소 불릴 노래 남북 문화교육을 위한 “아리랑 계획”

5. 통일 모의국무회의 안건의 예

2019년~2021년 수상팀 안건

시행연도 /주제	팀명	안건
2019년 평화와 번영의 통일한반도	도담도담	통일한국 스마트 E정책
	통성명	통일한국의 중부지역 개발계획: 오늘의 회복, 통일마을 조성사업
	한반도미래 연구회	동북아 번영을 위한 힘찬 도약: 한반도 에너지 협력 기금법
	깨.맑.자.	한반도 방역협업본부 설치와 공동 방역 사업 방안
2020년 힘내라,대한민국! 힘내라,한반도!	은새미	푸른 한반도 프로젝트: ECOREA 농업 클러스터 정책
	이음	청년들의 이등시민 정서 해결방안
	알리콘	개성-파주 접경지역 <평화신도시>건설 시범사업
	쿠니	4차 산업혁명 기반으로 통일한국 스마트시티 정책
2021년 힘내라,대한민국! 힘내라,한반도!	넘어넘어	강원공유도를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 DIA정책
	한반도미래 연구회	창조를 통한 포용 정책 신도시 개발
	하랑	통일 직후 한반도 안정화를 위한 '3P 정책과 新구분신참 정책'
	평양냉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경계에 선 제3의 생태도시

5.

통일 모의국무회의 안건의 예

2022년 수상팀 안건

2022년 통일한국을 디자인하다	새록새록	한반도 그린테크 클러스트 구축
	평화조화	통일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특구 조성
	PASS	한반도 도담도담 정책 - 한반도 교류 활성화 방안
	EPAS	유라시아 철도 FTA를 바탕으로 한 국내 행정 운영



“통일미래”를 준비하다

II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II

2023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시행 안내

주최 : 국민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 한반도미래연구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북구협의회

후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1. 경연 목적

통일 미래리더 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는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의 시기까지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과 참여의식을 키우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축제의 마당입니다. 이러한 모의국무회의의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 학생 세대에서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변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면서 평화통일의 의미에 대해 관심을 키워나가하고자 합니다.

2. 경연 주제

통일 단계 이전부터 통일 이후 시기까지의 상황을 가정하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변화상을 상상하여 평가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들을 수립하는 과정을 자유롭게 시연합니다.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수행 직책과 관련한 계획, 정책 등을 자유롭게 선정하여 모의국무회의의 시연)

3. 참가 신청 방법

참가 자격: 전국 대학생(2,3,4년제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참가 방법: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fki0330.kr) 혹은, 통일 모의국무회의 카페(<http://cafe.daum.net/unifi2016>)를 통해 참가신청서를 다운로드한 후 참가신청서(기획안과 팀 소개, 팀원 명단 포함), 모의국무회의 기획서 및 대본 (50분용)을 작성하여 unifi2016@daum.net으로 메일 접수
참가비 없음

팀은 최소 6명에서 최대 13명까지 구성

수행 직책은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장관 가운데 대통령 1인 및 5개 부처 이상의 장관들이 각 부처별 의제와 정책들을 발표하고 부처 선정은 자율적으로 진행함.

(현재의 정부 구성을 기본으로 하나 부처명의 경우 자율적으로 변경이 가능, 이 경우 부처 명을 현재의 부처 명으로 병기)

대본의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50분간의 국무회의 시연 내용으로 준비

4. 시상 내역

최우수상 1팀: 상금 300만원 및 통일부장관상

우수상 1팀: 상금 200만원 및 국립통일교육원장상

장려상 2팀: 상금 100만원 및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장상

상금 100만원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성북구협의회장상

5. 심사 기준

소재의 참신성, 자료 준비 및 활용도, 미래통일정책에 대한 공헌도, 의사소통능력, 국무회의 목적 달성도, 자세 및 팀워크 등

6. 대회 일정

7. 류 신청 및 접수 기간: 4월 24일 ~ 5월 13일 (24시까지 이메일 접수 및 종료)

8. 서류심사 결과 발표: 5월 16일 오후 6시 (합격 팀에 한해 개별 통지)

9. 예선: 5월 20일 (오후 1시) - 팀당 50분간 진행 (결선 4개 팀 선정)

10. 결선: 5월 27일 (오후 1시) - 팀당 15분간 발표 후 정책토론 토너먼트를 진행

7. 문의 및 상담

전화: 02-6053-2001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사무국>

전자우편: unifi2016@daum.net

통일 모의국무회의 카페 주소: <http://cafe.daum.net/unifi2016>

8. 예선 및 결선 상세일정

예선 (5월 20일 토요일)

장소 : 국립통일교육원

일정	시간	내용	비고
5/20 (토)	12:40 ~ 13:00	예선 오리엔테이션 및 경연 순서 추첨	장소 : 대강당
	13:00 ~ 13:50	1조 경연 (서류 심사 합격 2개팀)	* 1개 조가 2개 팀으로 구성 * 1조~4조가 2곳의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경연 진행 (총 8개 팀)
	14:00 ~ 14:50	2조 경연 (서류 심사 합격 2개팀)	
	15:00 ~ 15:50	3조 경연 (서류 심사 합격 2개팀)	
	16:00 ~ 16:50	4조 경연 (서류 심사 합격 2개팀)	
	16:50 ~	* 심사위원 평가 취합 및 협의, * 심사위원 A조에서 1,2위 팀 선발 / 심사위원 B조에서 1,2위 팀 선발 총 4개 팀이 결선에 진출	

결선 (5월 27일 토요일)

장소 : 국립통일교육원

일정	시간	내용		장소
5/27 (토)	13:00 ~ 13:30	개회식 및 결선 오리엔테이션		
	13:30~ 14:30	1부 (정책발표)	정책 발표	결선 4개팀 각 15분씩 정책 발표 (발표 방식 : 대통령 모두발언-각 정책부처 발언-의결된 정책에 대한 총론)
	14:30~ 15:50	2부 (정책토론 및 검증)	팀 간 지정공격 및 방어 (15분)	각 팀 대표(3명씩) 출전, 상대 팀 발표 정책에 대한 반론 및 대응 (해당 팀 순서에는 나머지 3개 팀이 질의하며, 해당 팀은 그에 따른 반론 및 대응한다.)
			작전 타임 (2분)	팀 의견 정비 및 자유 토론 전략 수립
			자유공격 및 방어 (20분)	각 팀 대표 전원 자유논쟁 상대 정책의 오류 및 허점 공략,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대응 및 방어
			작전 타임 (2분)	팀의 최종 변론 정리를 위한 준비
			최종 변론 (15분)	상대 팀에 대한 반론 포함, 자신의 팀에 대한 강점 및 타당성 전달, 감성에 호소할 수도 있는 스피치 능력 표출
	15:50~ 16:10	심사 협의		
	16:10 ~ 16:30	심사 발표 및 시상		

9. 참가신청서 양식

2023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참가신청서

1. 팀 소개 및 팀 대표 인적사항

팀명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명)
팀 소개	(300자 내외)

팀장 성명		생년월일	
소속	(소속 대학, 학과 및 동아리명)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2.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 기획서

<경연주제>

* 모의국무회의의 참여 동기와 경연주제, 문제의식과 기획의도 그리고 경연에서 발표할 주요정책 등을 기술
* 필요시 자유 형식으로 별지 사용 가능, 별지 사용 시 주제만 기술 후 A4용지 2매 이내로 별도 문서 파일을 첨부

위와 같이 2023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대표 신청인 (서명)

한반도미래연구원 귀중

3. 팀원 명단 및 정보

No.	이름	학교 및 학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및 이메일 주소	역할 부처 (부처명 변경시 현행 부처명 병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통일미래”를 준비하다

III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기획안 및 대본 예시

1. 기획안 예시

같이의 가치

: 창조를 통한 포용 창조문화도시 사리원(4異ONE)

1. 추진 배경과 정책 목표

1. 창조문화도시 조성의 필요성

- 남북격차가 아직 상당한 수준으로 존재하며, 그로 인해 상존하는 지역 갈등이 국가적 문제로 대두됨.
- 단순히 정치적인 통일을 넘어 궁극적으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통일을 완수해야 함을 목표.
- 문화로 도시 브랜드와 콘텐츠를 마련해 도시 매력으로 사람들을 오고 싶게 만드는 문화도시의 가치가 높아짐. 또한, 도시의 창조적 잠재성(예술, ICT등의 산업기술 + 2030 중심 '창조계층')을 발굴하고 계발하여 도시를 완전히 재창조하는 미래형 도시혁신으로서의 창조도시가 주목됨.
- 국가가 정책을 주도하는 것을 넘어, 지자체와 비국가행위자 등과 더불어 공동으로 기획, 추진, 평가하는 방식의 거버넌스가 주요한 정책방법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갈등관리 역량이 점차 중요해짐. 남북 주민의 상호이해와 사회통합이 강조되는 통일시대에 화합의 장으로서 포용적인 창조문화도시 활용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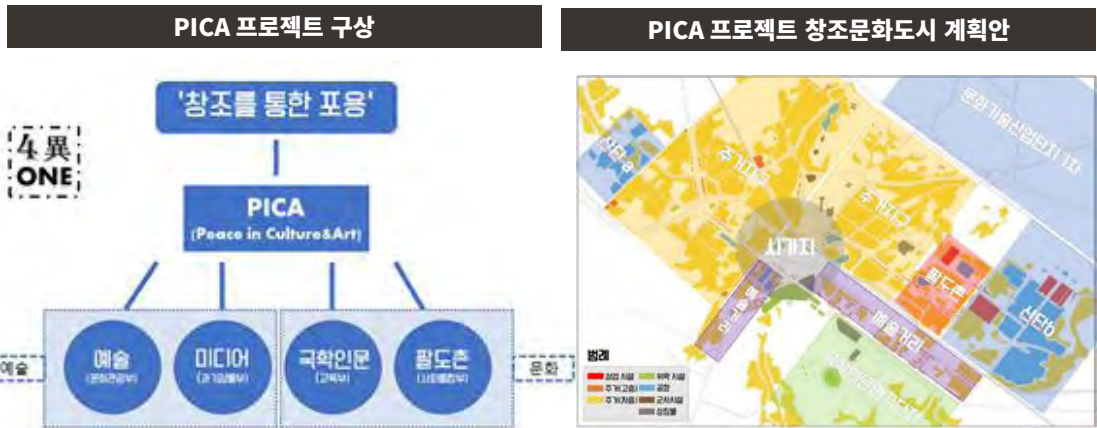
2. 사리원 선정 이유

- 1954년 북한당국에 의해 교육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대학과 공공문화시설이 집중되었고, 2007년 민속거리를 조성해 역사문화유적과 봉산탈춤 등 지역문화를 보존·연구하는 도시임. 또한, 고구려와 고려 문화유산이 다양한 북한지역에서 문화생활권을 통합시켜줄 거점도시로 생활환경 개선 후 문화산업 수요가 높을 것임.
- 서울과 평양과 사이에 있어 남북주민이 함께 모이기에 좋음. 평양개성고속도로, 경의선과 황해청년선이 지나가는 한반도 광역교통의 거점도시로서 통일한국 국민의 공존 가능성이 높아 문화향유와 사회통합의 목표가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적합한 지역임.
- 북쪽에 재령강이 흐르며 서해로 뻗어나갈 수 있고, 주변의 재령평야가 넓게 있어 배후지역으로의 확장 역시 용이함. 면적은 188km²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가량이고, 시내 면적은 자치구 하나 크기 정도임.

3. 창조문화도시 조성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적 가치들

- 창조를 통한 포용 : 포용이라는 가치가 창조라는 내용에 깃들어 있음.
- 1) 서로의 가치를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함께 만들어나감
- 2) 함께 활동(예술, 창업 등)하며 문화를 공유하고,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나감
- 3)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새로운 공간을 함께 만들어나감
- 같이의 가치 : 각기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지역적 차원 등)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살아가는 장소 자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통일한국 국민으로서 하나가 되고, 같이의 중요성을 느끼는 완전한 통일을 지향하게 함.
- 사리원 = 4+異(다를 리)+ONE : 4개의 정책 사업으로 다른(異) 남북을 하나로(ONE) 통합한다는 의미

II. 창조를 통한 포용 - <PICA 프로젝트>



- PICA란? “Peace In Culture&Art”로 통일로 찾아온 평화를 넘어 좀 더 안정화되고 화합됨에서 오는 평온을 문화예술을 통해 통일한국에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문화도시의 목표를 표현한 계획의 이름이자 슬로건입니다.
- 문화 분야(국학인문클러스터와 팔도촌)와 예술 분야(예술문화거리와 문화기술단지)가 함께 어울려

III. 도시 조성계획

- 국학인문클러스터: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육성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학문과 교육을 바탕으로 통합과 포용을 실현함
- 팔도촌: 전국팔도문화를 간접 체험하고 서로 소통하는 장소로 통일 직후 발생하는 문화적 이질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민족동질성을 모색함
- 42종계 하나路: 사리원 시의 공공장소를 남북합작의 문화예술로 꾸며내는 사업으로 소상공인과 예술인을 지원함.
- 문화산업단지: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과 관련 기술의 교육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트렌드 사업의 발판을 마련함

IV. 유관부처 주요 논의 사항

- 국학인문클러스터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학인문클러스터 내 교육 프로그램 이수한 국학인문전문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필요
- 문화기술(CT)산업단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다국적기업 유치 활성화를 산업단지 내에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문화기술산업 관련 국내 기업과 해외기업과 접촉기회 적극 마련할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평등한 고용노동환경과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도입 필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학 콘텐츠 사업에서 교육자료 개발과 활용 연구 협력 제안
- 팔도촌
(사회통합부, 교육부, 문화관광부) 운영위원회 내 교육과 콘텐츠 자문단 구성 요청
(사회통합부, 행정자치부) 지역주민협의회와 논의

V. 기대 효과

- 남한 체제와 제도가 기본 골격이 되었기에 더욱이 사회·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여 완전한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발판을 마련해줄 것임.
- 통일 한반도가 출신 지역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닌 각자의 특성을 살리며 어우러져 함께 성장
- 앞으로의 통일 한반도를 국민들이 스스로 '창조'해나가며 '포용'의 가치를 실현.

2. 대본 예시 1

창조를 통한 포용, 창조문화도시 사리원(4異ONE)

제목: 창조를 통한 포용정책 신도시 개발

안건: '창조문화도시 사리원(4異ONE)

#Chapter 1 국무회의 개최 선언

대통령

(시끌벅적 서로 인사를 나눈다.) 국무위원 15인 중 12명이 출석하여 과반수가 참석하였으므로 개의 요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국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 (땅!땅!땅!)

국무총리

먼저 회의에 앞서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자리에서 일어난다) (국민의례 음악 재생)

국무총리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통일한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시간상의 문제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는다) 다음은 대통령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Chapter 2

대통령 모두발언

대통령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 통일을 성공리에 이룩하였습니다. 민족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통일을 이룸으로써 꿈만 꾸었던 일들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통일을 향한 풀리지 않은 숙제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남북격차가 아직도 존재하고 그로 인한 지역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울로의 인구이동이 가속화되어 인구포화로 지금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고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죠? (끄덕끄덕) 장기간 다른 체제로 존재했었던 점이 보통의 지역갈등과는 다른 특수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남한사회가 기본골격이 되었기에 더욱이 사회·문화적 갈등을 극복하고 경제격차를 완화해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적 통일만 바란 것이 아니었으니, 이를 넘어 문화, 사회, 경제적 통합을 목표로했던 초심을 항상 마음에 품어야겠습니다.

통일 한반도가 출신지역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각자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어우러져 함께 살기를. 앞으로의 국가를 국민들이 스스로 '창조'해나가며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은 우리 포용 정부는 지금껏 격차를 해결하고 여러 국민이 함께 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한 방안을 생각해왔죠. 이에 대해 모방에서 창조로, 사람 중심의 경제를 이끌어내갈 수 있는 문화산업을 기반으로 한 창조도시를 구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국무회의에서 이를 실현할 창조문화도시를 공모하기로 했었죠? 그럼 국무총리님, 공모 결과와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시겠어요?

#Chapter 3

안건 브리핑

국무총리

예. 대통령님. '창조문화도시 공모'에 황해도 사리원시, 평안도 평성시, 함경도 함흥시, 강원도 원산시를 비롯한 여러 도시들이 희망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문화인프라, 교통편리성, 지역 참여의사, 경제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사리원시가 낙점되었습니다. 뒤에서 국토부 장관님께서 사리원시의 선정이유를 말씀드리겠지만, 일부 타 지역에서 구체적 평가기준과 최종 선정 이유를 정부에 요구하며 사실상 불복 의사를 표했는데요, 초기에 문화도시지원단 차원에서 해결하려 했으나 결국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함경도와 강원도는 태백산맥으로 고립된 지리적 특성과 접근성 때문에 그간 여러 사업에서 불리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 반복돼 민심이 좋지 못했지만, 마지막 조정위에 제가 직접 참석해 그들을 설득하고, 두 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

한 국토부의 교통망 정비를 지시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엔 이번에 불가피하게 배제된 지역들이 최대한 후속 사업의 수혜를 받도록 논의하자는 각부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업이 단지 사리원시 하나에 그치지 않고, '창조를 통한 포용'의 한반도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조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여러 국무위원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

수고하셨습니다. 총리님. 그럼 이제 안전상정을 하겠습니다. 국무회의 안전은 "사리원, 창조문화도시 조성계획 - 창조를 통한 포용"입니다. (땡땡땡) 다음으로는 문체부 장관님, 선정된 도시인 사리원에 구현할 문화도시의 청사진을 말해주십시오.

문화관광부 장관

네, 창조문화도시 사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숫자 4, 한자 다름 이, 하나를 뜻하는 영단어 ONE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는 4개의 정책사업으로 남북의 이질감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부처는 사리원시의 비전을 좀 더 구체화하여 peace in culture and art로 설정했습니다. 문장 속 단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peace는 통상적인 평화라는 의미보다 한층 더 포괄적인 '평온'의 개념입니다. 과거 남북한이 한국전쟁과 불화를 끝내고 평화를 위해 달려왔고, 이제야 시작된 평화의 시대에선 이보다 한 단계 더 안정화되고 화합됨에서 오는 평온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 평온을 culture 와 art에 녹여 4개의 정책과제로 구상했는데요, 각각 국학인 문클러스터, 문화기술 산업단지, 팔도촌, 42종계 하나路 입니다. 자세한 소개는 각 부처 장관님들이 해주실 예정입니다. 따라서 통합사업의 별칭은 창조문화도시 PICA 프로젝트입니다. 국무위원 여러분께서 본 사업을 [PICA 프로젝트] 로 약칭으로 호칭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해당 도시의 입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장관님의 발언 부탁드립니다.

#Chapter 4

[PICA 프로젝트] 도시 건설 브리핑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제시된 안건과 관련하여 먼저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 [PICA 프로젝트]의 건설부문 내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구)남북한 지역 차이를 최대한 좁혀 차별없이 모든 지역에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PICA 프로젝트는 첫 시작점으로 높은 기대를 안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 지역 차원의 열의와 주민 참여의사가 가장 높았던 사리원시가 지정된 후, 주무부처와의 논의를 거쳐 각 사업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 먼저 황해도 중심에 있는 사리원시에 대해 설명하자면, 북쪽에 재령강이 흐르는 평야지대로, 면적은 188km²로 서울특별시 면적의 1/3 가량이고, 시내 면적은 자치구 하나 크기 정도됩니다. 또한 평양과 서울 사이에 있고, 평양개성고속도로, 경의선과 황해청년선이 지나가는 한반도 광역교통의 거점도시입니다. 사회문화적으로는 교육문화도시로 지정되어 민속거리가 조성되어 있고, 민속놀이와 봉산탈춤 등 전통문화를 보존하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고구려와 고려 문화유산이 다양한 북한지역의 문화생활권을 통합시켜줄 허브로서도 기능하며 대학가가 조성되어 연구가 활발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정된 후, 사업단과 여러 부처와 논의한 결과, 기존 도시의 가치가 높아 도시계획을 사리원시 자체의 도시 구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뤄진 설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에 지도 띄우기)

지역주민과 관광객을 비롯해 더 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판단해 교통을 편리하게 조성했고, 타 구역과의 밀접한 연계와 기존 시설의 응용을 극대화했습니다. 철도역과 시가지에 가까운 모습입니다. 예술거리는 대학가 일부와 민속거리에 조성하여 문화생활 영위에 편리성을 더했고, 기존 연구단지를 이용해 학문과 콘텐츠가 고루 육성되는 국학인문클러스터를 붙여놓아 원활한 교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볼 것’으로서의 관광을 넘어, 팔도촌에서 전국팔도문화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체험여행거리를 조성했지요. 사리원시가 지역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어우러져 문화를 누리는 공간이 되게끔 고려했습니다. 문화기술산업단지는 연구단지로부터 약 5km 거리의 시외에 조성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저희 부처는 이번 [PICA 프로젝트]에서 해당 지역의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사업에 적극 반영할 것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리원시는 물론 옛 북한지역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 정비와 자치단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인 자치능력 발전지원 사업은 다음 내용입니다.

첫째, 옛 남북한 지역 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을 지원합니다. 본 정책은 통일 이전부터 남북 간 행정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정책입니다. 일례로 사리원시는 통일 이전부터 기존 화훼산업을 보호하며 도시 재생 사업을 진행한 바 있는 경기도 과천시, 원도심을 문화 자원으로 활용한 우수사례, 부산광역시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재정지원 및 공무원 파견 교육 등의 행정 지원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둘째, 행정자치부 주도 지방자치단체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해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하고, 각 지자체의 원조능력을 점검 및 조정하였습니다. 지자체 간 자매결연과 사무조합 구성의 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을 설명하겠습니다. 통일 이후 구북한 지역의 빠른 개발과 경제 성장이 이뤄지고 있으며, 남북지역 간의 경제격차를 줄이기 위해 저희 금융재정부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북한의 전반에 걸쳐 지역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그에 따라 배분되어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리원시에 PICA 프로젝트가 중요하지만 한정적인 정부 예산을 고려하면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기획재정부에서 준비한 사리원시 PICA 프로젝트에서의 민간 투자 유치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Public Private Partnership, 또는 PPP라고도 불리는 민관협력사업을 민간투자의 주요한 방식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각종 시설들의 설계, 건설, 운영 등을 민간자본을 통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지만, 합의된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권과 그에 따른 이익은 사업 주체에게 돌아갑니다.

외교통상부 장관

민간 투자 중 해외 자본의 유치 또한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외 자본을 끌어오는 데 있어 PPP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재정부 장관

실제로 인도의 pune에서 도시건설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PPP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지하철,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사리원시의 사회기반시설과 국학인문클러스터, 팔도촌 등의 건설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결국 PPP는 정부 예산의 지출을 줄이면서도 창조도시 프로젝트의 세계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를 감면 시켜주고 기업들의 입주에 필요한 토지를 싼 값에 공급해주는 혜택 등이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까지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회의 이후 별도의 자료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 건설에 드는 대부분의 비용은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민간에서 투자한 자본으로 충당될 예정입니다. 전체 건설 예산의 10%를 정부 예산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해외 자본의 조달은 최대 40%로 설정하고, 나머지 50% 이상을 국내 자본으로 유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며 국내 기업들도 보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Chapter 5

[PICA 프로젝트] 주요사업 브리핑

국무총리

이번 순서에서는 각부 장관님들께서 문화도시 사업의 주요 하위 사업들에 대하여 설명하시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교육부에서는 ‘국학인문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학인문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사리원시 내에 한국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지도에 표시된 클러스터 구역을 가리키며). 통일 이전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한국학을 연구하고 발전시켰기 때문에 통일 이후 다양한 부분에서 이질성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인식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통합과 포용의 가치를 실현하는 학문공동체를 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였습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국학인문클러스터 신설 사업단’을 구성해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사업 초기의 대상 분야는 한국어, 한국사, 국악, 한국무용 등으로 지정하며 점차 대상 분야를 확대하여 나중에는 한국문학, 한국철학, 태권도, 민화, 문화재, 한국 전통문화 등 한국학 전반을 다루고자 합니다. 본 사업단에서는 국립국어원, 국립국악원 등과 같은 국립국학연구기관을 사리원시로 이전함과 더불어 ‘한반도국학원’을 새롭게 신설할 예정입니다. 국립국학연구기관들을 이전하고 신설함으로써 연구의

집적성을 높여 안정적인 연구생태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안정적인 연구 기반과 클러스터 내 활성화된 성과 공유-연계를 유인책으로 내세워 국학을 연구하는 민간기관들의 정착을 이끌어낼 예정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좋은 사업 추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육부 장관님! 한국학에 대한 통합을 이루는 국학인문클러스터 조성 사업은 하나된 한반도의 상황을 세계인에게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반이 되겠군요,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왔기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PICA가 추구하는 peace라는 방향성과도 아주 적절하게 상응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 장관

네, 교육부 측에서도 본 사업이 가지는 의의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연구 기반 구축과 동시에 국학 교육과 진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국학교육사업단’을 구성하여 국학인문클러스터 내 하나의 주체로 참여하고, 국학의 질적향상을 위한 ‘국학인문전문가 양성 과정’과 같은 장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교과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인프라를 갖추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교육부에서는 이를 수용하여 ‘국학특성화고등학교’를 신설하고, 기존 사립원시 내에 위치한 단과대학들을 하나의 지방거점국립대학으로 통합한 후 국학 관련 학과를 개설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연속 2개 교육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학비를 지원하는 경제 지원정책과 더불어 교육 과정 개설 초기에는 장기적이면서도 포용과 다양성의 가치를 추구하는 정책을 펼칠 것입니다. 다만 교육부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국학인문전문가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의 협력을 요청하고 싶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이에 대해선 부처 차원에서 ‘자갈자갈-직업 창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이후 연계사업 브리핑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네, 또한 교육부에서는 다양한 우리문화 요소의 대중화와 세계화 시대의 국학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클러스터 내에서 ‘국학 콘텐츠 개발’ 사업도 고려 중입니다. 교육자료 및 대내외 홍보자료들을 만들 계획인데, 이에 대해선 본격적인 사업단 추진과정에서 구체화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에서는 국학을 연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각 주체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본 사업을 이끌어 나갈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국학인문클러스터 사업은 '창조를 통한 포용'이라는 사리원시의 대표적 가치에도 부합하며, 통일 이후 진정한 통합의 장으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국학인문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다음으로, 과기부의 구상 사업인 '문화기술산업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문화에서 중요한 미디어와 문화콘텐츠, 문화기술 분야의 개발을 통해 국내 3, 4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고, 통합을 통한 도약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육성분야는 영상 특수효과, 방송장비, 디지털 방송기술, 그래픽 영상 기술과 미디어 아트입니다. 분단 당시 전반적으로 남북간 산업기술격차가 크게 존재했지만 상대적으로 방송/영상 산업쪽은 심각하지 않았고, 남북방송교류 및 창작교류가 종종 진행되어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 등 성공사례가 있는 점을 보아, 현재로써 남북한 출신 국민들이 함께 기술격차를 줄여나가며 쉽게 화합해나가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해당 산업단지는 사리원의 '창조를 통한 포용과 통합' 슬로건을 실천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문화기술은 IT 테크놀로지를 바탕으로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분야이기에, 궁극적으로는 국내 독자적인 디지털 영상기술 및 콘텐츠 허브를 조성해 관련 벤처기업, 엔지니어와 예술인, 제작사들이 함께 목적의식을 공유하고 창작물에 대해 자유롭게 협력하며 각자의 아이디어와 기술, 역량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으로 상용화 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PICA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흥미로운 사업이네요. 다들 아시겠지만 통일 이후, 북한 출신 주민들이 남한의 치열한 경쟁풍토를 받아들이며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국가 차원에서 그 한계가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부터 통일 초기에 이렇게 화합, 육성시킨다면 이들의 성장은 다른 분야의 본보기로서 우리 사회의 '평온'이라는 분위기를 주도하리라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지지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남북한 출신 관계없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콘텐츠 등이 융합된 IT 서비스를 제시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방송/영상 산업종사자들의 기술 재교육 및 직업훈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리원엔 과기부 산

하 전문연구교육기관을, 전국의 몇몇 대학교엔 미디어컨텐츠 융합기술 특성화 학과를 신설해, 입학과 교육의 일정 인원을 북한 출신 국민에게 할당하는 쿼터제를 실시하려 합니다. 기술원에선 기존 남북한 엔지니어들, 방송산업 종사자들을 전문적으로 기술교육시키는 과정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취업능력 연수와 정도 진행됩니다. 한편,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를 위해선 입주 공모를 받아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기업규모 등 여러가지를 검토한 후, 단지 내에 창업을 하거나 기업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재정과 경영지원을 제공하고, 해당 기술을 발전, 적용시킬 인프라와 스튜디오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후원 및 공동운영을 바탕으로 이외의 활동은 자율에 맡기고, 기존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들의 수주를 통한 외주 제작과 기술지원, 다양한 구성원 간 교류 및 합작 등 이들만의 독자적인 콘텐츠를 창조해내는 방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외교통상부 장관

(손을 들며) 질문 있습니다. 현재 외교통상부에서 사리원시 내 다국적기업 유치 활성화를 고려중입니다. 국내 노동자들과 기업의 경력과 글로벌 경쟁력이 증진되고 도시의 경제발전과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산업단지 내에 실현할 수 있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음, 다국적기업을 유치했을 경우의 상황이나,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보호되는 선에서 그들과의 상생이 가능할 지 한번 여러가지를 고려해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외에 산업단지와 우리 기업들을 PR할 수 있는 자리나 해외 기업과의 접촉기회를 적극 마련하는 것도 협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외교통상부 장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 기술력에서 보강이 필요한 오감체험형 콘텐츠, 홀로그래피, 콘텐츠 제작 및 편집 부에 대한 해외 문화사와 스튜디오와의 접촉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네. 추후에 계속 논의해보도록 하죠. 그리고보니 제가 전에 중기부 측에 구체적 지원대상 선발기준에 대해 부탁드리면서, 부처 차원에선 산업단지의 지속적 성공인화를 위해 어느정도 성장한 초기 기업들이 자립하고, 그곳에 다른 유치기업이 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관님께서 논의된 방향성을 간략하게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네. 사전에 말씀해주신 걸 바탕으로, 우선 지원대상에 대한 큰 틀은 ‘비상장 기업이자, 일정 비율 이상 북한 출신 근로자가 근무하고, 혁신기술 창업소재 또는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와 연구계획을 가진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으로 정했습니다. 세부기준은 따로 전달하겠습니다. 혹여나 정부지원으로 기업이 안주해 기업가정신이 저해되거나 성과창출이 미미할 것을 대비해 본 산업단지에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을 최대 6년으로 규정하고, 6년 내에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20% 이상이거나, 투자가치가 1000억 이상 도달할 경우, 본 산업단지에서 독립하도록 하면서 시장자립보조금을 지급하고 상장 과정 및 후속 투자유치를 위한 네트워킹 행사 등 후속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손을 들며) 남북 출신 상관없이 평등한 고용노동환경과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정기적인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고용유지율, 부당대우, 산재사망 발생률 등 뿐만 아니라 북한 출신 노동자 고용비율, 모두에게 공정한 임금지불 및 승진기회 제공 등의 기준을 적용하는거죠. 좋은 평가를 받은 곳은 ‘하랑강소기업’으로 시상하고 여러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기업 스스로가 노력하도록 장려할 수 있을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전국적으로 실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기존 상업시장에서 이들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 소비가 필요할 듯 하니 활용할 수 있는 유형, 혹은 온라인 기반 무형 플랫폼 모두 고려해보겠습니다. 또, 국학인문클러스터에서 ‘컨텐츠 제작’ 사업단을 구성해 참여한다면 서로에게 도움이 될 듯 한데요. 교육부 장관님, 가능할까요?

교육부 장관

공감하는 바입니다. 앞서 얘기한 ‘국학 컨텐츠 사업’에서 함께 교육자료 개발과 활용을 연구하는 방향으로 협력부탁드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네. 알겠습니다! 그 점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다음은 이 도시계획 사업에서 또다른 한 축을 맡고 계신 사회통합부 장관께서 브리핑해주시죠.

사회통합부 장관

사회통합부 장관입니다. 저희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팔도촌은 지역문화를 간접 체험하며 소통하는 장소로, 과거 남북 간 문화적 이질성을 문화적 다양성으로 이해하고, 나아가 새로운 민족동질성을 찾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도시재생을 통해 기존 골목길 지역에 문화체험 및 전시공간, 지역문화 관련 상가, 주거공간을 마련해 팔도촌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손을 들며) 체험마을에 따로 주거공간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통합부 장관

주거공간은 사리원 주거지구, 혹은 기존 군부대시설을 재건축해서 청년들을 위한 공동 주택과 지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관광객 숙소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지역주민협의회와 사회통합부가 지속적인 소통을 진행하여 팔도촌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팔도촌 구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려 하는데 이 위원회 내에 자문단의 역할을 할 인력 선정을 문화관광부와 교육부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행정자치부에서도 이 지역주민협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작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싶습니다. 이 협의회 및 지역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민-관 간 능동적 의사소통을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마을축제 기획학교를 조성, 협의회와 지역주민의 자치능력을 제고할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 주도 사업을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인 참여를 유도해도 좋을 듯 합니다.

사회통합부 장관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협의회와 논의하는 데 있어서 행정자치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교육부 장관

(손을 들며) 질문 있습니다. 자문단은 어떤 역할이길래 필요로 하시는지요?

사회통합부 장관

지역문화가 팔도촌 내에서 적절한 방향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내용과 구성방식을 점검하는 역할입니다. 각 부처가 선정한 자문단이 곧 말씀드릴 교육 과정에도 참여하면 팔도촌이 편향되지 않고 질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네, 저희도 지역 문화에 대해 균형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 교육은 어떤 목적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사회통합부 장관

팔도촌 구성에 앞서 사업 종사자들에게 필수로 전반적인 문화이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팔도촌의 취지에 걸맞게, 서로의 차이를 다양성으로 존중하고 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고요. 변화하는 사회와 뒷 세대를 고려할 때 민족 동질성 회복에선 화합, 연대와 공존 등 공통의 가치가 중요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교육부 장관

그럼 문화자문단은 팔도촌이 단순히 다양한 지역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차이점을 짚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분명히 제시해야겠네요.

사회통합부 장관

맞습니다. 이후 운영단계에서는 분기별로 사회통합부에서 활동 내용을 평가해 우수활동지역에게는 인력을 충원하고 지원금을 제공하려 합니다. 두번째는 조정협의체 마련입니다. 사회통합과정 중 발생하는 특정 갈등은 거버넌스 측면의 협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구체적으로 제도 해석의 차이, 기회와 이익 배분 같은 문제들은 특성 상, 당사자들이 능동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형식적인 보고 절차는 최소화하고 중재자가 함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적 절차로 인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대통령

갈등 조정과정을 대략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간 사이의 갈등은 제도를 관리하는 사회통합부가 담당하고, 정부와 민간 간

의 갈등은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 집단이 담당하여 실효성이나 형평성에 대한 우려를 최소화하려 합니다.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과 쟁점을 찾고, 양측의 충분한 입장 공유를 통해 현실적이고 효율성있는 접점을 이뤄 양측 모두 윈윈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후에도 사회통합부에서는 협의체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당사자 간 현황을 보고 및 점검하여 지속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좋네요. 이번 사리원시 사업이 지역공동체 주도로 진행된다면 단순 재개발을 넘어 주민들에게도 사업 수혜를 돌려주기 용이하고, 주민과 정부 간 갈등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문화관광부 사업, 42종계, 하나路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는 사리원시의 공공장소를 문화예술로 꾸며내는 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도시 이름 사리원에서 착안하였는데요, 42개 팀의 남북 출신 문화인과 기획운영자를 선발하여 ‘평화’라는 대주제 아래, (사리원 시 도시계획 이미지를 가리키며) 해당 구역을 문화예술로 채워나갈 것입니다.

사회통합부 장관

(손을 들며) 장관님. ‘평화’라는 대주제로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특정한 주제를 설정한 것 자체가 참여자들의 아이디어나 자유로운 활동에 제약을 주진 않을까요? 특히 ‘창조를 통한 포용’이라는 사리원의 비전과 다르게 개인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될까 우려됩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사회통합부다운 지적이군요! 문광부 내에서도 사업 구상과정에서 해당 지적에 대한 논의를 거쳤었는데요. 설정한 대주제는 거리의 성격을 제시하고 전체적인 통일성을 주는 요소이지, 참여자들의 행보를 무조건 주제 안으로 강제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문화예술사업에 종사하는 시민들이 참가자인만큼 주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오고갈 것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사회통합부 장관

그렇군요. (미소를 지으며) 지금처럼 앞으로도 통일된 한반도라는 새로운 정책

환경과 다양한 시민들에 대한 고려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부 장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소개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남북출신 문화인과 기획운영자를 포함해 행정담당자와 시민 그룹도 중요한 행위자입니다. 다시 말해, 본 사업에서는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하나로 협의체'를 구성하게 됩니다. 협의체는 4개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행정담당자로 사업의 추진에 대한 공적 업무와 예산 지원, 추진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사업에서는 문화관광부가 담당하게 되겠지요. 두 번째는 시민그룹으로 사업에 관심과 추진의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이 모여 만들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바탕으로 사업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된 문화인그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기획자, 건축가, 도시설계자 등과 같이 기획 및 실행 업무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활성화하는 기획운영자그룹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의 특정 구역인 우리 사이, 하나路는 문화인그룹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곳이자 삶의 터전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문화관광부는 '문화인과 기획운영자' 또는 '문화인과 문화인' 간의 연계 및 협력을 장려할 예정입니다. 이후 문화예술 작품들이 상품화되고 공연으로 만들어지고 전시되어 시민들이 소비하는 데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발언을 끝내기 전 남북한이 진정한 하나가 된 한반도를 지향하는 사리원 시의 지역정체성을 살리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휴전선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 출신의 사람들이 협력을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문화관광부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무총리님,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기 전 해당 사업에 대해 문화관광부가 중기부의 지원 요청을 하신 부분에 대해 발언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국무총리

네. 발언하십시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하나로로에 속하지 않는 구역일지라도 사리원 시내에 한해서 ‘하나로 협의체’의 승인을 받을 시 중소기업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달라는 문화관광부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처 내부 회의 결과, 본 사업에 중소기업들의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는 예상 아래 본 부처의 규정을 제정하여 해당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소기업부에서 제정한 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부에서도 ‘사이[42]종계, 하나로’사업의 취지를 살려 남한과 북한 출신의 사람들이 합작하는 것을 필수조건 중 하나로 삼고자 합니다. 추가적으로, 예술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구성원에 속해 있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술인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소상공인은 경영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력함으로써 분업을 하여 서로가 맡은 바를 특화시킨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방식은 단순히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지역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문화도시에 걸맞게 예술인을 지원하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예술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무총리

그렇다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모두 지원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 수준도 동일하다는 건가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한 법인의 형태는 모두 지원 대상이지만 지원 수준을 상이하게 할 예정입니다. 협동조합 외 영리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순으로 지원정도가 내려가도록 차등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목표 ‘창조를 통한 포용’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윤 창출’과 ‘구성원에 대한 포용’을 척도로 효율성과 상생 정도가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이어 ‘창조를 통한 포용’이라는 가치에 공헌하는 정도 역시 다르기 때문에 차등 분배 지원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국무총리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구체적인 지원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시겠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네. 지원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방식은 크게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구성원 모집 단계입니다. 통일 직후인 현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 출신 사람들의 합작'과 동시에 '예술인과 소상공인의 합작'을 이루는 것에 대한 어려움 중 하나가 '구성원 모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남북 출신의 예술인들과 소상공인들이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설립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창업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창업 준비기금과 금융 전문변호사와의 면담 기회를 제공하는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세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운영단계입니다. 예술인의 '예술작업'과 소상공인의 '영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상가나 작업실을 매입할 때 취득세,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식이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부지나 건물을 매입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조합원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인 설립부터 1년간 운영지원금을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 재정이 어려운 법인에 한해 서류 심사 후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Chapter 6

[PICA 프로젝트] 연계사업

외교통상부 장관

외교통상부 장관입니다. 외교통상부의 정책안은 '창조도시의 세계화'입니다. 창조도시의 세계화는 국제적 위상 제고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문화외교를 강화하며 이를 수 있습니다. 문화외교의 일환으로 통일한국의 공공예술 발전과 청년 예술가들의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예술가들을 해외에 파견하는 기회를 늘리겠습니다. 또 국가차원의 문화혁신포럼을 개최하여 신규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문화콘텐츠 육성방안을 트렌드 개념으로서 모색하는 발전적인 회의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해당 회의의 본부는 사리원에 설치하고, 청년 전문가들의 포럼과 정부 차원의 포럼을 분리하여 진행함으로써 초국가적 트렌드에 맞춰 나가는 통일한국을 만들 것입니다.

국무총리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출신에 따른 차별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감독 등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

기부 장관님께서 제안해주신 정책들은 이러한 정책의 흐름과 함께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두 부처가 연계하여 정책 시행을 감독하고 조정해나감으로써 올바른 근로환경을 구성해나갈 것입니다.

우선 '자갈자갈 - 직업 창출 사업' 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토대는 교육부에서 진행하는 '국학인문전문가 양성 과정'을 거친 국학전문가들이 새로운 직업을 창출함으로써 일자리를 얻고, 추가적으로 국학을 국내외로 널리 알릴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입니다.

사회통합부 장관

자갈자갈이 무슨 뜻인가요?

고용노동부 장관

'자갈자갈'은 국학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 국학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과 산업을 고민해보는 장의 이름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여럿이 모여 나직한 목소리로 지껄이는 소리'라는 의미의 순우리말입니다. 이 플랫폼에서 국학 전공자들은 UX, UI 디자이너 등 새로운 직업과 분야를 창출한 사람들의 강의를 듣고, 산업의 변화 구조와 전도유망한 직업들에 대해서 배웁니다. 또한 이곳은 전공자들이 모여 새로운 직업과 분야에 대해 고민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분화, 융합화, 가치화, 산업화, 유희화 과정을 중심으로 플랫폼의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면서 새로운 직업 및 산업을 창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중기부의 창업 도약 패키지의 우선순위 대상 중 하나로서 지원받고, 평양산업단지에서 원래 조성되어 있던 시설 혹은 경공업 기업과 연계하여 아이디어의 실현을 도울 계획입니다.

교육부 장관

교육부의 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정책이 연계되어 이뤄질 성과가 기대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통합 박람회'입니다.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기존의 실패 박람회를 모티브 삼아 '통합 박람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먼저 폐업증명서 및 소견서 등의 서류를 통해 기업인의 회생 가능성 및 성실성을 평가하여 참여자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선보이는 대회를 만들거나, 창업 실패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것을 발표하고 다른 이들과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만들 것입니다. 이후 자료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사업 자금 및 재창업 교육 등을 통해 재창업자 회생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통합 박람회'의 특

정은 '남북 합작기업 경험교류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입니다. 참여자들은 남북 합작 기업 내 분위기나 출신이 다른 직원들 간의 차이점으로 발생한 문제를 공유하고 공통으로 갖는 문제점을 찾습니다. 이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보고, 영상 혹은 예술로 승화하여 널리 알린다면 기업 문화 및 근무 환경, 나아가 전반적인 문화 차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hapter 7

국무회의 정리

국무총리

네, 그럼 시간상 이쯤에서 오늘 회의를 정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안건은 창조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체제와 제도말고도 국민이 서로를 이해, 존중하고 하나되어 진정한 평화를 달성하려면 포용과 함께하는 문화 창조를 통해 이를 달성하고자 우리는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명칭은 'PICA(Peace in Culture & Art)'이고, 크게 예술 분야와 문화 분야의 사업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예술 분야 하위 사업은 예술문화거리와 문화기술단지, 문화 분야 하위 사업은 국학인문클러스터와 팔도촌이 있습니다. 예술문화거리에서는 남북의 예술가들이 함께 협업하여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만들어 나갑니다. 문화기술단지에서는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의 개발과 관련 기술의 교육을 통하여 통일 한국의 한류를 이어갑니다. 국학인문클러스터에서는 남북 간 상이한 역사, 언어, 음악 등을 미래 지향적으로 통합해 나가고 통일 한국문화의 세계화를 지향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도촌에서는 우리 생활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함께 열어나가는 한반도의 미래를 모색합니다.

이상의 사업들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지원들이 제공되며, 이번 PICA 사업은 사리원시라는 공간을 남북 평화와 포용의 중심지로 다시 거듭나게 하는契경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국무회의 정리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논의에 참여해주신 모든 국무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Chapter 8

마무리 발언 및 의결

대통령

참석하신 국무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발언과 깔끔한 정리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랜 염원인 통일을 이루었어도 여전히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차이와 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계속해서 머리를 맞대고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국무회의 안건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국무위원분들은 '사리원, 창조문화도시 조성계획 - 창조를 통한 포용' 안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

네, 이것으로 상정된 사리원, 창조문화도시 조성계획(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사리원 시가 같이 살고 같이 고민하며 같이 창조해나가는,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는 초석으로써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리원에 한해 창조문화도시 개발이 추진되지만, 이를 본보기로 삼아 다른 지역에도 활용하고 한반도 전체에까지 파급효과가 생기도록 우리 '포용정부'가 더욱 힘을 냅시다. 특히 PICA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기존 사리원시 거주자들과 새로운 입주자들, 방문자들 어느 누구라도 출신지나 거주 지역에 따라 소외받지 않고 진정한 '창조를 통한 포용과 화합'을 실현할 수 있길 유념해주시시오.

자, 긴 시간 회의 수고하셨습니다. 더운 여름에 땀 흘리시며 적극적으로 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마음을 담아 제가 소소한 먹거리를 준비했으니 회의 마무리 후 같이 드시죠.

(허걱! 무려 배스킨라빈스 사리원!?!?!)

(웃으며) 그럼 이상으로 국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 대본 예시 2

제목 :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한반도!

● 통일한국 모의국무회의 토론 안건

강원공유도를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DIA 정책)

● 등장인물

대통령, 국무총리,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겸 통일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법무부 장관, 강원도지사

S#1 국무회의 개최 선언

대통령

아이고, 벌써 오셨네요. 개성공단에서 이뤄진 9.5합의에 따라 남북 정상 간 논의할 일들이 참 많아졌어요. 지금도 '남북연합'의 이행과 관련해서 긴급히 직통 전화를 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대통령

(환하게 웃으며) 부탁드린 대로 강원도지사님도 오셨네요. 요즘 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살이 많이 빠지셨네요. 강원도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함께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도지사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모두 박수로 강원도지사님을 맞이하시죠.

국무위원 일동

환영합니다. (짝! 짝! 짝!)

대통령

이제 맘도 식혔겠다, 바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6월 15일 구성원 15인 중 9인이 출석하여 개최 요건이 충족되었으므로, 헌법 제88조 2항과 정부조직법 제12조 1항에 따라 '강원공유도를 통한 한반도 균형 발전의 정책적 논의'를 위한 제7차 국무회의 개최를 선언합니다.(의사봉을 두드린다. 땅!

땅!땅!)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권을 국무총리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주신 각 부처의 장관 및 강원도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묵념과 노래 제창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를 위해 힘써준 모든 이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일동 묵념)

바로, 다음으로 One Dream One Korea 제창이 있겠습니다.(사전에 준비된 소리 On)

one dream for one korea

on and on and on

소리내 말한 적 있나요

우리의 소원, 그 소원은 통일

국무총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S#2

대통령 모두발언 및 국무총리 [DIA정책] 설명

국무총리

이어서 대통령께서 '강원공유도를 통한 한반도 균형 발전의 정책적 논의'와 관련된 금일 국무회의 소집 취지와 논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

대통령

국무위원 여러분, 판문점 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지난 개성공단 정상 회담에서는 그 어떤 정부도 이루지 못한 '남북연합'에 대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은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에게 그 역사적 책임을 부여했습니다.(결의에 찬 표정으로) 우리 정부는 지난 한 세기 가까운 시간 동안 해결하지 못한 그 미완의 과제를 완성해서, 온 겨레의 열망과 기대에 반드시 보답하여야 하겠습니다. 크히나 오늘의 안건인 '분단된 남북의 강원도 지역의 행정을 시범적으로 통합하는 정책'에 대해서 결실 있는 결과가 있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먼저, 총리께서 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별첨자료1을 보여주며)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DIA정책>은 각각 물류(Distribution), 국제(International), 행정(Administr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북측 지역의 원산을 스마트물류핵심지대(D-city)로, 남측 지역의 양양을 한반도국제협력지대(I-city)로, 그리고 남북의 접경 지역인 철원을 행정 중심의 강원공유도청(A-city)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강원공유도 내 특구 사업으로 시범 운영 될 예정이며, 남북연합 단계라는 체제 안에서 장기적인 3단계 로드맵을 기반으로 점차 강원공유도와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 및 강화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D-city (Distribution : 물류)의 거점지역인 원산은 항만시설을 바탕으로 스마트물류핵심지대로 선정 하여,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둘째, I-city (International : 국제)의 거점지역인 양양은 공항을 바탕으로 한반도국제협력지대로 선정하여, 남북공동협력을 기반으로 한 MICE사업과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한 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인프라 제공, 행정적 특혜 등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셋째, A-city (Administration : 행정)의 거점지역인 철원은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강원공유도청으로 선정하여, 남북의 공동 행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 및 양양과 협력함으로써 다가 올 통일을 준비함과 동시에 인구소멸위기인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통하여 한반도의 균형개발을 이룬다는 중 장기적인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논의에 앞서, 남북연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개성공단 정상회담에서 실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현재는 북측과 연락채널을 구축하고 계신 통일부장관님께서 이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을 부탁드립니다.

S#3

남북협상 보고 및 <DIA 정책>에 대한 3단계 로드맵 제시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겸 통일부장관

([별첨자료2] 를 보여주며) 네, 지난 9-5 정상회담에서 '남북연합'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개최된 남·북·미·중이 참여한 4자회담에서 남북한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공식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회담의 결과로 미국과 중국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정착의 핵심을 남북한 간에 자주적으로 이루어냄과 동시에 주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들의 지지와 협력을 얻었기 때문에 현재는 공식적이고도 진정한 평화의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그렇다면 남북연합에 대한 설명과 현재 후속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졌는지 말씀해주시죠.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겸 통일부장관

네, 재작년 9-5 정상회담에서 체결된 개성공단 선언에 의하면, ‘남북연합’은 남북이 급속한 통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과 호혜의 관점에서 통일의 과정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전까지의 남북기본합의서가 분단 관리에 치중한 현상유지적 성격을 가진 것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 통일의 추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평화를 남북 간 협력으로 정착시키고 그 과정에서 형성한 신뢰를 바탕으로 통일로의 단계를 발전시킬 전략적 의의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기반 사업으로써 남북협력을 위한 공동위원회 출범, 이에 관련한 실무회담 관례화, 동해선·경원선·경의선 등의 철도 및 도로 조성이 최근까지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통일평화의 플랫폼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대통령

(흐뭇한 미소로) , 장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할 일이 많아서 하루에 24시간도 부족하겠어요.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겸 통일부장관

(이때다 싶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남북연합 실현의 첫 단추가 바로 <DIA정책>이고 그 시범사업이 바로 강원공유도입니다. 이 정책은 원산-양양-철원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강원공유도’라는 공간구조를 설계하는 사업으로, 경제통합·사회통합·지역개발로 단계별 접근할 계획입니다.

대통령

결국 북측의 영토도 함께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지 또한 확인해야겠네요. 통일부 장관님, 현재 시점에서 북한의 입장은 어떤가요?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겸 통일부장관

([별첨자료3] 를 보여주며) 네, 지난 3월 남북고위급 회담을 통해「강원지역

공동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합의가 성사되었는데요, 북측도 한반도 균형발전과 강원 지역 활성화라는 공동의 이해관계 속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공유도 공동 운영 및 관리」사업은 남측과 북측 인원으로 구성된 강원공유도 추진위원회 산하 공동운영 협의회에 의해 운영될 계획이기 때문에, 공동 운영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통일부장관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남북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져 강원공유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북한과의 활발한 논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총리께서 다시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국무총리

([별첨자료4] 를 보여주며) <DIA정책>은 시범적인 사업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정부는 한반도 통합에 3단계 로드맵을 기반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1단계 (거점지역 전략)

강원공유도 내, 남측의 양양 (국제) , 북측의 원산 (물류) , 남북 공동의 철원 (행정) 에 특구를 조성하여 시범운영한다.

2단계 (연계지역 전략)

강원공유도 내, 3개 도시를 기반으로 주변지역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남한과 북한의 각 도시별 네트워크화를 추진한다.

3단계 (확산지역 전략)

강원공유도 내, 양양-원산-철원 3개 도시를 연결한 삼각형 내부지역의 남북공동자치구역을 진행하며, 남 측의 접경지역과 북측의 여행금지 구역의 해제를 진행한다.

국무총리

이에 따라, 금일 국무회의에서는 3단계 로드맵을 기반으로 <DIA정책>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 교통부 장관님께서 1단계 거점전략과 관련하여 강원공유도 내 3개 도시 선정 근거를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바라보며) 국토 교통부 장관님?

S#4

1단계:거점지역 전략을 위한 남북한의 도시 선정

국토교통부 장관

네,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물류핵심지대 (D-city) 가 구축될 예정인 원산은, 북측에서 강력한 개발 의지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동시에 러시아, 한반도, 일본을 잇는 해상 중심점에 있는 항만을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국무총리

원산항은 북핵 관련 이슈로 일본과 갈등을 빚으면서 2006년부터는 잘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들었는데,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지 않을까요?

국토교통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고 원산은 관광산업 기반의 대대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특히나 원산·갈마 해안관광지구의 건설이 추진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북측에서 D-city의 후보 군 중 가장 추천했던 지역인 만큼 물류 중심의 스마트항만 계획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큼니다.

국무총리

그렇군요. 이어서 양양과 철원에 대해서도 마저 들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한반도국제협력지대(I-city)가 설치될 양양의 경우 현재 국제공항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양양 국제공항은 1년에 317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을 갖추고 있는 영동권의 거점공항입니다. 2018년에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공식 공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별첨자료5] 를 보여주며) 그러나 양양 국제공항은 기대와 달리 주변과의 지역적 연계성이 부족하여 자체의 한계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원도 관광의 항공 관문'이라는 공항 비전이 무색하게 느껴질 따름입니다.<DIA 정책>을 통해 양양 국제공항을 기반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효과적으로 끌어내, 중장기적으로 강원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대통령

남북협력을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양양의 지역적 한계점도 해결할 수 있겠군요.

국토교통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현실적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 중입니다. 철원에 대해서도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철원은 과거 교통의 중심지였지만 분단 후 군사 안보적인 이유로 현재까지 개발이 정체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남과 북이 공유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북 공동운영 행정 시스템의 배경으로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강원공유도청(A-city)의 배경이 될 철 원에서 한반도 평화 증진과 더불어 강원지역 균형개발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네, 좋습니다. 이쯤에서 도정을 책임지고 계신 강원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네요. 강원도지사님, 도지사님께서는 앞서 말한 도시 선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원도 지사

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책 설명을 들어보니, 국무위원님들께서 많이 고심하시고 우리 강원지역에 관해 연구하신 것이 느껴져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잠시 머뭇거리며) 한 가지 도지사로서 의견을 밝히자면, 철원보다는 양구가 강원공유도청의 부지로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양구군은 2018년에 있던 판문점 선언 때부터 한반도 평화통일의 중추로서의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나 2019년<양구군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을 뿐 아니라 ‘민통선 북방마을 복원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해왔습니다. 만약 행정 지역을 양구가 아닌 철원으로 결정한다면 도민들의 반발이 심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고개를 끄덕이며) 네, 도지사님의 말씀 이해합니다. 그러나 사실 강원공유도청이 철원에 유치된 데에는 복 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 결정적인 계기가 교통에서의 이점인데요, 서울·포천·철원 고속도로가 2025년 완공되었기 때문에 철원과 서울 사이의 이동이 수월합니다. 또 동시에 철원은 북측의 평양과도 비 교적 인접해있는 편이고요.<DIA 정책>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은 철원이지만 추후에는 양구를 포함한 강원지역 전반으로 확대될 계획이니, 그런

부분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원도지사

그렇군요. 이와 같은 회의 내용을 도민 분들께 전달하고 잘 설득해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 도지사로서 최 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한반도 균형발전과 강원도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국무위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도지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저희도 힘이 나는데요? 하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각 지역에 도입되는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S#5

원산항의 스마트항만 구축계획에 대한 논의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네, 제가 먼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city (원산) 는 물류 유입을 원활하게 하는 목적으로 스마트 항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델링할 사례는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으로 선정했습니다.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항만들과 빠르게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는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항만의 현대화를 위해 IT, 조선 등 항만과 전자 융합 기술을 중심으로 R&D와 산학 연합 협력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무총리

로테르담 항만 사례가 실질적으로 원산항에 적용될 수 있나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스마트 항만은 정체되어 있는 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항만의 자체의 발전을 넘어 지역적 발전까지 도모할 수 있는 핵심 산업입니다. 특히 로테르담 항만은 유럽 물류의 중심지로 스마트 항만 기술을 바탕으로 주변 지역과 체계적인 물류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원산도 러시아와 중국 등을 연결하는 지리적 위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물류 중심지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로테르담항의 사례가 적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마트 항만을 위해 도입되는 기술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해양수산부 장관께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별첨자료6] 을 보여주며) 로테르담항의 경우 5개의 영역으로 나눠 스마트 항만을 구축했습니다. 이 중에서 도 D-city는 물류에 관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원산항은 노후 시설이기 때문에 추 후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스마트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항만 자체에 대한 개 보수 작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플랫폼 구축은 네덜란드와 기술 교류를 통해 구축할 예정입니다.

대통령

스마트 플랫폼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해양수산부 장관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별첨자료7] 을 보여주며) 네비게이트 (Navigate) 는 빅데이터를 이용 해 가장 최적의 루트를 제시하고 시간, 운송업체 등 많은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별첨자료8] 을 보여주며) 또한 프론트는 각 항만물류 처리 스케줄에 대한 실시간 정보통합 및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두 제품이 가진 공통점은 '정보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만든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스마트 항만의 핵심 중 하나는 정보의 연계를 통해 여러 항만과 기관들이 같이 운영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산에 이러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선박의 항만 공급시설 내 참여자와 고객의 요구가 항만 개발과 운영에 직접 전달됨으로써 상호 의견 전달이 용이해지고 선박의 위치를 파악이 가능해져 일의 처리 속도가 높아지는 등 효율성이 증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총리

북측의 영토에 이와 같은 기술이 도입되려면 법 제도가 구축되어야 속전속결로 진행될 텐데요. 법무부 장관 님,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법무부 장관

원산항은 남측에 위치한 항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와 운영, 안전 기준 등을 모두 남한법을 따르게 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는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북측과 합의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무부 차

원에서는 북측의 영토를 활용한 경험을 뒷받침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법’을 참고하여 원산항의 스마트 항만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님께서서는 통일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법무부 장관

네 알겠습니다.

S#6

MICE산업의 도입을 통한 양양의 한 반도브랜드화 논의

국무총리

이제는 양양 지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아야하겠는데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을 바라보며) 양양의 국제공 항을 기반으로 한 MICE사업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I-city (한반도국제협력시대) 로 선정된 양양 지역은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한 개발 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인 프라 제공, 행정적 특혜 등을 적극 고려하고 있으며, 남북공동협력을 기반으로 한 MICE사업 진행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양은 공항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과 지역적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이를 보완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세부적인 프로젝트를 계획 및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쳐다보며) MICE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대통령

양양 지역에 MICE 산업이 구축된다면 지역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MICE사업은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관련 여러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별첨자료9] 를 보여주며) MICE 방문객이 지출하는 금액이 단순 레저나 관광 목적의 일반 여행자보다 많고, 행사의 규모가 커서 고용창출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습니다. 또한 국가 이미지 제고 효과도 지니고 있어 남북의 정서적, 경제적 기반을 확충시켜 나가는 동시에 강원도 자체의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통령

그렇다면, 현재 남북공동협력 기반의 특화된 MICE사업에 대해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을까요? 남북이 강원 공유도에서 함께 협력하는 것이니 특색사업이 있었으면 좋겠군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선적으로 양양지역에서는 공항과 시내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컨벤션 센터를 건축하여, 강원국제평화엑스포를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MICE산업을 활성화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과 북은 시범사업으로서 전통문화, 아리랑, 한복 등의 전시회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주변 지역과의 협력을 통한 남북의 UNI-square 거리 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별첨자료1] 이를 보여주며) 양양지역은 최 종적으로 한반도국제협력 지대로서 남북공동의 사업을 진행하여 외국자본을 안정적 유치하고 관광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한반도 브랜드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무총리

한반도국제협력 지대를 지역 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이루어졌나요? 만약 지정된다면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을까요?

법무부 장관

네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님과 강원도지사님께 확인한 결과, 지역특화특구 계획서 제출과 주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마무리했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님께서도 심의와 의결을 완료하셨기 때문에 지역특화특구 지정에는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 ([별첨자료11] 를 확인하며) 굉장히 많은 특례가 있지만, 그 중에 MICE산업에 더 도움이 되는 특례는 제31조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제60조 '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S#7

남북공동행정운영을 위한 철원 강원 공유도청 설치에 관한 논의

대통령

(강원도지사를 바라보며) 강원도지사님 처음에는 표정 조금 어두웠다가 점점 미소를 찾으시는 것 같네요. 하하

강원도지사

(웃으며) 양양에 MICE 산업 진행이 결정된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도민들께서 관광산업에 대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금강산 관광 프로그램이 중단된 뒤로는 참 힘들었거든요. 이 와 같은 부분도 도민 분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도지사님, 어깨가 무거우시겠지만, 같이 한 번 힘을 내서 잘해봅시다.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강원도의 발전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하하. 참, 도지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는 김에 (행정안전부 장관을 가리키며) 철원의 행정 시스템은 어떻게 구상 중인지 한 번 들어봅시다.

행정안전부 장관

네, 남북공동 운영 행정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인데요, ([별첨자료12] 을 보여주며) 보여드리는 자료가 강원공유도청의 전신이 될 '강원공유도 추진위원회'의 조직도입니다.

대통령

(천천히 살펴본 뒤) 좋네요. 도지사님? 도지사님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강원도지사

네, 필요한 부서들로 잘 구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민하다가) 조금 고민이 되는 것은 기존 강원도청에 있던 남북교류 관련 부서가 2018년에 신설을 해서 지금에 오기까지 굉장히 애써왔거든요.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도 여기서 운영을 해왔던 것이고.. 상당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직원들이거든요. 그런데 강원공유도청의 구성 과정에서 먼저 조직된 부서가 배제돼버린다면 저희로서는 허무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부서를 통째로 옮겨버릴 수도 없고……. 이와 같은 문제도 검토해주시는 건가요?

행정안전부 장관

네, 저희도 언급하신 부서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사실 조만간 제안 드리려 했던 내용인데 여기서 미리 설명 드리자면, 남북교류과를 구성하고 있는 평화기획팀, 교류협력팀, 통일기반조성팀, 정착지원팀 중 교류 협력팀과 통일기반 조성팀에서 강원공유도 추진위원회로 파견 근무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강원도지사

아, 네. 좋은 생각인 것 같네요. 관련 부서 및 도청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관련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에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잠시 고민에 빠지며) 그런데 혹시 공무원 인사문제에 관련해서는 북측과 미리 합의된 부분이 있나요?

법무부장관

네, 남북한 공무원 인사문제는 강원공유도 시행 이전부터 통일부와 북측의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강원지역 공동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 합의서'에 따르면 통일부와 북측이 1:1 원칙에 따라 남측 인원과 북측 인원을 구성하기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열은 미소로 띄며) 그렇군요. 남측과 북측이 하나의 행정을 꾸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임은 분명하지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강원도정과 함께, 북측과도 지속적인 논의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S#8

2단계: 연계지역 전략을 위한 첨단
사업 도입과(DIA정책)의 현실가능
성 검토

국무총리

앞선 거점지역들로 산업의 유치로 성공한다고 해도 2단계인 연계지역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강원공유도 라고 하는 상징성이 발화되는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

네 그렇습니다. 세 지역을 연결하기 위해서 먼저 철원, 양양, 원산 간에 개통된 철로를 조사해보았는데요, 철원과 원산은 경원선으로 연결되어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평양과 철원을 잇고 세 거점지역인 세 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폭넓게 계획 중입니다.

대통령

세 지역을 잇는다고 해도 지뢰, 생태환경 등의 문제가 있는 DMZ 혹은 산간 지방인 동해의 지리적 문제들이 중첩되어있는데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강구했는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대로 지상을 통한 연계지역 전략은 한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부처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지하도로 연결을 통한 최첨단 교통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으로 계획 중입니다.

국무총리

최첨단 교통시스템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먼저 지하를 통한 이동은 인공지능 산업에 맞추어 진행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 셧을 겁니다. 현재는 3단계에서 개발단계가 멈춘 상태인데요, ([별첨자료13] 를 보여주며) 지역 간 거리를 생각하면, 현재 단계에서도 자율주행차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의 시범적인 단계에서는 남북한의 합의로 등록된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서만 지하도로를 통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적극 추진 하게 되었습니다. ([별첨자료14] 를 보여주며) 더불어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 인적자본 뿐 아니라 스위스의 지하물류 교통연구단의 CST (Cargo Sous Terrain) 프로젝트를 사례를 연구 분석하여, 물류 운송을 데이터 운송과 파이프라인 운송을 결합한 형태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별첨자료15] 를 보여주며) 다양한 시설과 운송 통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터널 내 다용도 유틸리티 시설 및 운송 통로를 갖춰 지상공간의 제약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현재 자율주행 차량의 개발단계에서도 인적·물적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은 흥미롭네요. 그런데 이 정도 사업 이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겠네요?

기획재정부 장관

규모가 큰 편이어서 초기자본이 막대할 것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비용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기획재정부가 스위스 연구단체의 사례를 참고한 CST의 분석에 따르면, 지하 자율 주행 도로를 이용한 무인 수송비용이 톤킬로미터 당 0.51달러로 책정되어있는데 사실 이는 기존 물류 시스템의 수송 비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무인 수송을 도입할 경우, 물류 운송시간과 환경부 하 저감 효과, 창고 공간 및 인건비 절감 등을 장점이 있어 장기적으로는 한반도 내 사업을 진행하는데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무총리

거점지역 간에 연결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철원지역은 상호 연결되어있는 것이 아닌가 요? 지하도로만으로는 연결이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철원지역만큼은 현재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과 같이 지뢰문제, 환경문제 등 여러 제약이 있습니다. ([별첨자료16] 을 보여주며) 현재의 원칙은 DMZ 내 지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감 정보의 현실적인 기능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뢰 제거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통령

(흡족한 미소로)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지역적 연계를 위해 앞서 설명한 기술들의 성공적인 정책을 위해 장관님께서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S#9

3단계: 확산지역 전략과<DIA정책>
의 기대효과 및 향후과제 논의

대통령

거점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들을 산업별로 계획하고 발전시켜서 지역 간 연

제가 이루어진다면 2단계까지는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겠네요. 아까 종리님께서 브리핑 하실 때, 3단계 확장지역 전략에서 양양-원산-철원 3개 도시를 연결한 삼각형 내부지역의 남북공동자치구역화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 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행정안전부 장관

강원공유도 내, 행정도시인 철원을 중심으로 양양-원산-철원 3개 도시를 연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 집니다. 로드맵 3단계 확장지역 전략은 2단계 연계전략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을 바탕으로, 장기적으로는 강원공유도 내 삼각형 내부지역을 모두 연결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는 남북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과 북측의 여행금지지역을 해제하여 특구간의 이동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

예, 특구 간 자유로운 왕래가 이루어진다면 통일이 눈앞에 온 것을 실감할 수 있겠네요.

대통령

각 장관님들의 의견을 들으니, 강원공유도가 벌써 눈앞에 훤히 그려지는군요. (번뜩이는 눈빛으로) <DIA 정책>기대해 봐도 좋겠지요?

행정안전부 장관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북측과의 강원지역 공동 운영은 통일 이후 남북한의 사회통합문제를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균형적 표준화 정책을 미리 구상할 수 있을뿐더러, 통일 한반도를 준비하는 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DIA 정책>을 통해 강원공유도를 남북공동자치구역화하는 것은 남북연합의 실질적인 이행의 첫 단계이자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준비단계로써 발돋움할 것입니다. 또한 시범적으로 공동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치 창출을 하여 실질적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 장관

(살짝 눈치를 보며) 훈훈한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2018년과 2020년 사이의 일만 생각해도, 북한은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다 이후에는 도발적인 태도로 태세전환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를 고려했을 때<DIA정책>이 과연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요?

남북고위급회담 수석대표 겸 통일부 장관

물론 남북관계에 관한 확답을 드리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 균형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와 이익 속에서 남북연합은 더욱 견고해져 나갈 것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자회담에서도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좋았으며, 최근 북한이 적극적인 협조와 함께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정책진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협력의 폭은 더욱 확대될 수 있고, 또한 우리 입장에서 급속한 통일비용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원함으로써 북한과 신뢰를 높여나갈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따라서<DIA 정책>진행만큼은 흔들림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화폐, 인구의 급작스러운 유입, 생태 및 환경, 군부대의 이동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화폐 문제는 지역을 공유한다는 지점에서 필수 항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대통령

기획재정부 장관님께서 역시 화폐나 은행 문제를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번 회의에서는 논의하기 어려울 것 같고, 조금 뒤에서 또 연락이 약속되어 있는데 제가 직접 정상 간 협의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감사합니다. 화폐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전까지 다양한 국가, 관련부처, 학자 등과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S#10

<DIA정책>의 표결 및 국무회의 산회

대통령

좋습니다. 혹시 금일 안전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있으신가요? (조용) 없으시다면 이제 오늘의 안전<DIA정책>에 관한 논의 사항과 세부 정책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총리

강원공유도를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DIA정책>은 3단계 장기적인 로드맵을 기반으로 남과 북이 공유하고 있는 강원도 지역에서 원산, 양양, 철원 중심의 시범적인 공동운영을 진행하여 한반도의 통합과 균형적인 국토개발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회의에서는<DIA정책>의 3단계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별 의견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세부적인 전략으로서 1단계 거점지역 전략의 세 도시에 대해 자세 히 논의하였습니다. 이상의 논의를 거쳐 종합한<DIA정책>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장관님들께서는 투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하여 투표 진행) 투표결과 찬성 8표, 기권 (기획재정부) 1표, 반대 (법무부) 1표로 과반이 찬성하였기에<DIA정책>에 대하여 가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을 두드린다. 땅! 땅! 땅!)

대통령

그렇다면, 이상으로 금일 국무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안전에 대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 사명감이 있으셔서인지 회의를 지켜보는 제가 더 긴장을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보니, 차기 회의에서도 통일을 위한 겨레의 열망에 보답하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무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는 박수로 마무리할까요?

국무위원 일종

짹 짹!

대통령

제가 국무위원들 모시고 식사 좀 대접하고 싶네요. 오늘 철원 오대쌀 한정식 어떠신가요?

국무위원 일종

좋습니다! 하하하 (웃으며 마무리)

I. 정책추진 배경과 정책 목표

1. 한반도의 서해안벨트에 집중되어있는 개발환경

- 남한은 현재 서해안고속도로와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대규모 인프라 시설과 함께 인천을 비롯한 평택, 아산 등의 신도시 선정과 그리고 첨단사업 중심의 산업단지 그리고 해안을 활용한 관광레저단지 등이 상대적으로 서해안 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 북한도 전체 광산 중 53%가 서해권에 위치하여, 자원 개발을 위한 인프라가 수도인 평양을 비롯한 개성과 해주, 사리원과 남포 지역이 위치한 서해안에 집중되어 있음.
- 지리적으로 산간지방인 동해안에 비해 평야 지역인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물류·교통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발전되어있음.

2. 균형적인 통일한반도 도출의 필요성

- 서해안 중심의 남북경협 발전은 역설적이게도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여 한반도의 불균형한 국토통일의 위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 2000년대 이후 서해안 지역에서의 남북경협 및 DMZ를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이 이루어졌다면, 통일한반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통일 환경을 적극 조성하고 시범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통일 이후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II. 정책 설명: 강원공유도를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DIA정책〉

1. 정책목표

- ① 한반도 평화변영: 철도·경제 중심의 남북 서해안 협력과 안보·생태 등의 지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한 남북 DMZ협력과 함께 공동운영·가치·변영의 가치를 내세운 동해안 협력을 통해 남북이 평화공존을 이루는 새로운 동력을 부여한다.
- ② 한반도 국토균형: 군사적으로 극심하게 대치하고 있고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도입하여 관리하고 남북 강원도 지역에 대한 공동발전을 이끌어 서해안에 치우쳐 있는 국토의 불균형성을 완화한다.
- ③ 통일 준비: 분단된 강원도를 행정적으로 공동운영함으로써 통일한반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학습장으로 활용한다. 또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통일비용을 줄이면서 산업별 가치 창출을 이끌어 남북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얻는다.

2. 기대효과

- 서해안에 치중되었던 국토불균형을 해결함과 동시에 서해안에 집중된 남북 경협 인프라를 동해 안으로 확장
- 남북이 강원공유도 내에서 철원을 중심으로 행정적 문제를 시범 공동운영함으로써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중간단계로 도약

- 원산 (D-city): 물류산업 확대 (스마트 물류! 첨단산업)
- 양양 (I-city):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 (MICE산업 도입)
- 철원 (A-city): 남북의 행정적 통합 및 인구 문제 해결 (지역균형발전)

3. 실현방안

◎ 1단계 거점지역 전략

- ① D-city (Distribution: 물류)의 거점지역인 원산은 항만시설을 바탕으로 스마트물류핵심지대로 선정하여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한 물류사업 진행
- ② I-city (International: 국제)의 거점지역인 양양은 공항을 바탕으로 한반도 국제협력지대로 선정 하여, 남북공동협력을 기반으로 한 MICE사업과 외국 자본의 유치를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각종 인프라 제공, 행정적 특혜 등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환경 조성
- ◎ A-city (Administration: 행정)의 거점지역인 철원은 남북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강원공유도청으로 선정하여 남북의 공동 행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고 원산 및 양양과 지역적으로 협력하는 동시에 강원도 지역의 발전을 통해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하여 한반도의 균형개발을 이룬다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목표로 운영

◎ 2단계 연계지역 전략

- ① 남북 철원 연결 구간의 경우 양방향 원격 제어 시스템을 도입한 산업로봇을 활용하여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를 연결하여 지상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도록 함
- ② 지하도로 연결을 통한 최첨단 교통시스템 이용
- ③ 원산과 양양 지역의 연결 구간은 스위스의 CTS프로젝트를 참조하여 무인 자율주행차량이 오가는 지하터널의 건설을 통해 두 도시를 연결

◎ 3단계 확장지역 전략

- ① 도시간의 연결을 바탕으로 연결된 거점지역 내의 특별자치구역화를 추진
- ② 양양-원산-철원 3개 도시를 연결하는 삼각형 내부의 지역으로 공동행정 시스템을 넓혀나가 강원 공유도의 자치화를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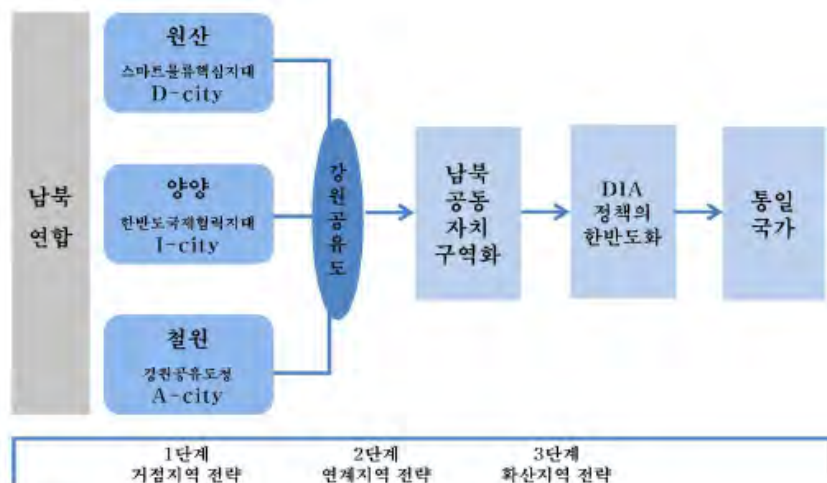
DIA 정책		
쟁점		대답 및 절충안
1단계	원산	로테르담의 스마트 항만사례를 원 산에 적용 가능한가? 원산은 한반도 물류 중심지라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고, 노후화된 시설 보수작업이 이루어진다면 자동화 시스템 마련 가능함
	양양	MICE 산업의 구체적인 내용 대규모 컨벤션 센터 구축과 평화 엑스포 개최
	철원	강원공유도청의 구성 과정 강원도청의 남북교류과 중 일부 팀을 강원공유도 추진위원회에 파견
		북철원과 남철원의 상호 연결 방안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을 통한 지뢰 제거
2단계	교통	DMZ/산간 지방의 교통 문제 지하도로를 통한 자율 주행 차량 운행
3단계	북측 입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배제하는가? 북측의 적극적인 협력과 변화 의지를 확인함

별첨 1) DIA City 구상(가상)

D-city 물류 (Distribution)	I-city 국제 (International)	A-city 행정 (Administration)
스마트물류핵심지대	한반도국제협력지대	강원공유도청
북한의 원산: 항만	남한의 양양: 국제공항	남한+북한 철원: 행정 거점

별첨 2) DIA 정책 한반도화 과정(가상)

[DIA 정책 한반도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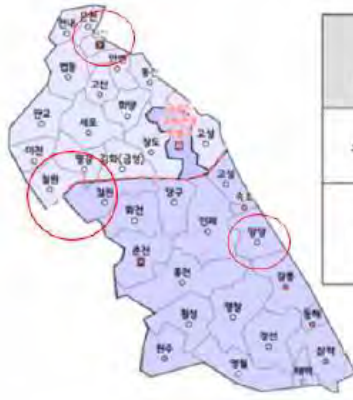


유관부처 협의사항

통일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원공유도 공동 운영 및 관리>사업은 남북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서 남북이 공유하는 공간구조를 설계하여 경제통합·사회통합·지역 개발을 목표로 한다. 2. 강원공유도 사업을 통한 남북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적 신뢰와 이익 제고를 통해 한반도 평화 공존을 도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DIA 정책의 성공을 위해 세 거점지역의 도시 기반 시설, 교통 인프라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 강원공유도를 국토 균형개발의 모범적인 사례로 만들고, 남북협력이라는 상징성을 넘어 한반도의 지리적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다.
중소기업벤처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만을 벤치마킹한 스마트 항만을 구축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우드 플랫폼과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며 R&D와 산학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2. 양양의 향후 국제도시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하며, 외국 자본의 유치 활성화를 목표로 각종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해양수산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항은 노후시설이기 때문에 추후 증가하는 물동량에 대비하기 위해 고도의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므로 항만 자체에 대한 개보수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2. 네비게이트(Navigate)와 프론트 시스템으로 정보의 연계를 통해 상호 의견 전달이 용이해지도록 하며, 선박의 위치를 파악하여 빠른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양양에 대규모 컨벤션 센터와 강원국제평화 엑스포를 진행하고, 남북 시범사업을 통한 UNI-square 거리 조성 등으로 강원도 자체의 관광 산업을 부흥시키고 외국 자본유치를 통한 한반도의 브랜드화를 도모하겠다.
행정안전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철원에 남부공동운영 행정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 2. 남북교류과의 교류협력팀과 통일기반조성 팀은 강원공유도 추진위원회로 파견 근무를 보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뢰제거는 로봇의 양방향 원격 조정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2. 원산-양양 간 인적/물적 교류는 스위스의 CTS를 참고하여 민간 투자를 받아 지하 터널을 건설한다면 미래지향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자율주행 지하도로 건설비용을 마련하는 방안으로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며, 정부 차원의 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2. 강원공유도 내의 화폐 문제를 통일국가 등 다양한 사례 분석과 관련 부처 회의, 전문가와 논의해보겠다.
법무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률의 적극적 검토를 통해 북한과의 새로운 교류를 이끌어내기 위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다. 2. 원산의 스마트 항만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위해 여러 법률을 검토해볼 것이다.
강원도지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강원도민께 철원의 강원공유도청 부지 선정 이유를 전달하고 설득한다. 2. 강원도청 내의 교류협력팀과 통일기반조성팀의 강원공유도 추진위원회 파견 근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별첨자료 1

강원공유도를 통한 한반도 균형발전, “DIA정책”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D-city	I-city	A-city
물류(Distribution)	국제(International)	행정(Administration)
스마트 물류핵심지대	한반도국제협력지대	강원공유도청
북한의 원산: 평안	남한의 영인: 국제공항	남한+북한 질권: 행정 거점

별첨자료 2

2028 개성공단 선언 결과 선명자료

▼ 개요

○ 남과 북은 '28.9.6 '정상회담'을 북측 지역「개성공단」에서 개최

○ 남과 북은「개성공단 선언 이행 방안 및 분야별 후속회담 일정 등을 논의. 3개항의 합의사항을 공동보도6■으로 발표

----- <공동보도문 주요 내용> -----

남과 북은 9월 5일 개성공단에서「남북연합」실현 방안 협의를 위한 정상회담을 진행,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음.

1. 남북이 급속한 통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상생과 호혜의 관점에서 통일 과정을 공동관리하기 위한「남북연합」실천적인 조치 추진
 - ① 가까운 시일 내 쌍방 인원으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출범하여 공동 운영 관리를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무적 대책 수립
 - ② 판문점 선언 발표 10주년을 맞아 방안들을 모색,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
2. 사성공단 정상회담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한 부문별 회담들을 M히 게
 - ① 남과 북은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을 바흔 시일 안에 개최하여 비무장 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기 위한 문제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운영문제를 논의
 - ② 동해선·경원선·경의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철도 및 도로협력 분과회의 등의 개최 날짜와 장소를 차후 문서교환을 통해 확정
 - ③ 시범적으로 강원도 지역 공동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회의 개최 하여 남북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사업 모색
3. 고위급회담을 정례적으로 개최,『개성공단 선언』이행을 총괄 점검 및 부문별 실무회담 진행과정을 보아가며 차기 고위급회담 개최

별첨자료 3

‘강원지역 공동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부속 합의서

남파 북은 역사적인 4성공단 9우5 선언에 따라 당국 간 형의음 긴밀히 하고 교류와 힝터음 윈만혀 보장 하기 위하여 강원도 기의 공동 운영 및 판리픈 다운4 감이 추진하기S 합의하였다.

직!조 명칭과 위치

1 분 사업의 당칭은 (‘강원공유도 공동 음잉 믹 4리 J3L 한다.

Z 위치는 천권·원산·양양용 중심으로 강령도 내 지역으S 신경한다.

제2조 구성 믹 기능

1 강원토 공동 운영 및 판리는 남북인함음 실현하기 위한 준비 탄저호! 남*이 공유하는 공간구조# 설계하여 경시*합·사회융함·지이4발을 목표호 한다.

2. 분 사업은 북*지이여 신산용 스마트#유학심지대호. 남한지역어 양양용 한반도국새형벽지 (SS. 전 편* 남북표준도시M 에밤흥으a씨 강원공유도은 구축하는 사업을 진!한다.

a 분 사업은 강원공유도 추진위원회 산하 공동은•영 형의회에 어해 음영된다.

제3조 흥등 및 편외보장

1 강원공유도 추진위원회 인임»은 강원도 내 지어 흥입과 시丹 사 건췌액 위치한 임시 흥입컨리소에 서 반급한 «입증용 착용한다.

2. 강원공유도 간린 희여는 희소® 누기 1회 개최하는 것으 원칙으로 하디. 던요® 강우 합의하여 수시 兎 거1회호 수 있다.

a 강원공유도 잔턴 희외는 김원 또는 쌍방이 합의하는 다른 장소에서도 계획권 수 있다.

서4조 항의서의 수정 보◆ 및 X턱 발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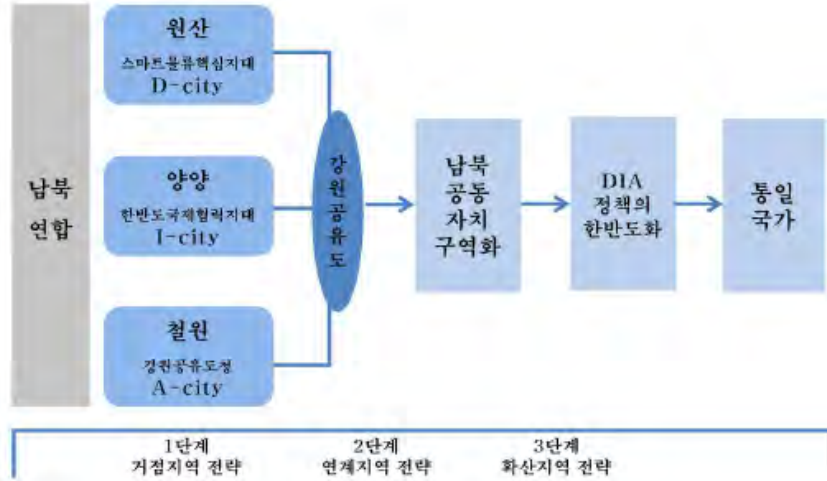
함여서는 나방이 서하여 2환한 날부터 희외가 발생하며 상호 합외에 따라 수경 될 보안할 수 있다.

2028년 3월 10일

남북고위급회담 남쪽수석대표 북남고위급회담 북측단장

별첨자료 4

[DIA 정책 한반도화 과정]



별첨자료 5

양양 국제 공항 이용 현황

연도	2020	2022	2024	2026	2028
운항(편수)	400	622	698	1037	1487
여객(명)	50023	88403	90026	219808	259872

별첨자료 6

로테르담항 'SMARTPORT' 로드맵 구성 체계

영역	목표	주요 프로그램	프로젝트 사례
Smart Logistics	-공급망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 (컨테이너시장에 초점)	① 디지털 물류 ② 자동화 물류	-ETA predictor -Truck platooning
Energy & Industry	-석유화학 클러스터의 지속 가능하고 최적화된 운영	① 항만구역 품력발전 확산 ② 산업영역의 전기에너지 사용 전환	-Deep Decarbonisation Pathways -DDP: Power-2-Gas-2-Refineries
Port Infrastructure	-안전증대,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는 형민개발과 활용	① 해저면 항해를 통한 준설 최소화 ② 운송수단 최적운영 ③ 선석 내 센서를 통한 데이터 수집	-Navigation through fluid mud -External effects on the port
World Port City	-항만 이해당사자에 적절한 정보 제공, 지자체 정책방향 수립에 기여	① 혁신 ② 비즈니스 환경 ③ 미래 기술 등	-World Port city Index -Benchmark innovative ecosystems
Port strategy	-로테르담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전략 개발	① 현황 분석 ② 새로운 트렌드 및 연구개발 분야 발굴	-Port Innovation Barometer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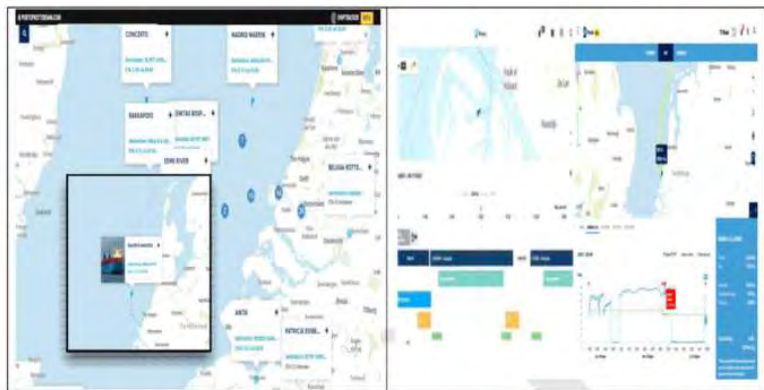
자료: SMARTPORT 홈페이지(<http://smart-port.nl/en>)

별첨자료 7



자료: SMARTPORT 홈페이지(<http://smart-port.nl/en>)

별첨자료 8



자료: SMARTPORT 홈페이지(<http://smart-port.nl/en>)

별첨자료 9



별첨자료 10

엑스포 예상 수익

(단위: 원)

경제적 파급 효과	생산 유발효과	소득 유발효과	수입 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간접세 유발효과	취업 유발효과(명)	고용 유발효과(명)
주최기관 개최비용 효과	직접효과	270,408,471,623	75,901,528,682	9,199,673,398	138,295,440,958	1,337,922,942	2,894.61
	간접효과	84,895,261,212	11,591,565,793	20,594,204,798	29,348,293,785	423,805,600	401.91
	총효과	355,303,732,835	87,493,094,475	29,793,878,196	167,643,734,743	1,761,728,541	3,296.53
내국인 지출효과	직접효과	459,814,363,573	114,980,426,073	10,091,942,764	211,348,490,060	2,365,160,717	4,903.17
	간접효과	265,622,782,025	40,852,171,781	56,868,065,711	103,381,665,911	1,766,692,366	1,630.86
	총효과	725,437,145,599	155,832,597,854	66,960,008,475	314,730,155,970	4,131,853,082	6,534.03
외국인 지출효과	직접효과	173,345,538,863	45,925,934,318	2,417,208,617	84,409,772,501	837,188,261	1,836.65
	간접효과	96,808,699,948	15,532,405,036	18,916,438,696	38,605,494,100	644,185,627	572.31
	총효과	270,154,238,811	61,458,339,354	21,333,647,313	123,015,266,601	1,481,373,889	2,408.95
행사개최 총효과	직접효과	903,568,374,059	236,807,889,073	21,708,824,779	434,053,703,518	4,540,271,920	9,634.43
	간접효과	447,326,743,186	67,976,142,610	96,378,709,205	171,335,453,796	2,834,683,593	2,605.02
	총효과	1,350,895,117,245	304,784,031,683	118,087,533,984	605,389,157,314	7,374,955,512	12,239.50

자료: KOREA, BEYOND MEETINGS

별첨자료 1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약칭: 지역특구법)

[시행 2020. 2. 11] [법률 제16985호, 2020. 2. 11, 타법개정]

중소벤처기업부(지역특구과-지역특화발전특구) 042-401-1603, 1604

중소벤처기업부(규제자유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규제자유특구) 044-865-9719

제31조(「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①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용(雇佣) 발급의 절차 및 1회에 한 수 있는 체류기간별 체류기간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인이 제1항을 적용받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용 발급신청 등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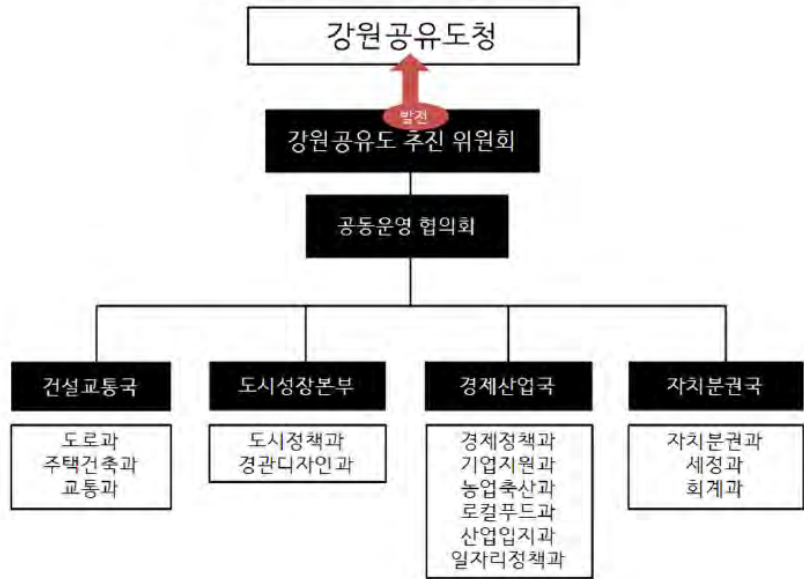
제60조(「지방재정법」에 관한 특례)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가 하려는 특화사업에 포함된 재정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실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부칙 <제16985호, 2020. 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6조제3항 중 “국가식품융합터스티원센터”를 “한국식품산업터스티원센터”로 한다.

출처: 법제처 지역특구법 부분 발췌

별첨자료 12

강원공유도 추진위원회 조직도



별첨자료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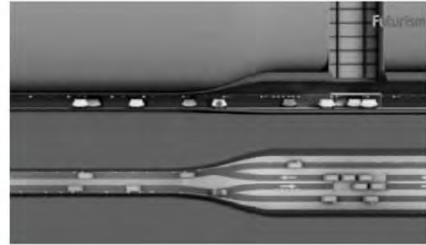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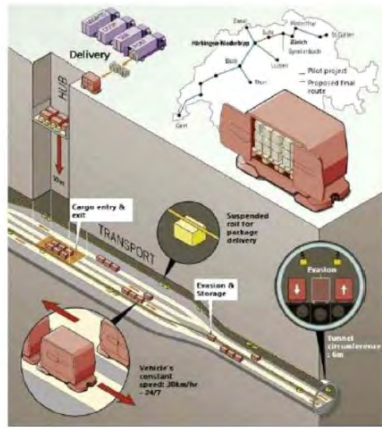
자율주행 단계 (표)

LEVEL 1	LEVEL 2	LEVEL 3	LEVEL 4
운전자 판단 하 일부 주행 자동	운전자 판단 하 주행 자동	부분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손/발 중 하나만 자유 상시 주시 필요	손/발 자유, 상시 주시	손/발 자유, 한시 주시	손/발 자유, 눈 자유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 (ADAS) 중 하나만 지원 예) 스마트 크루즈 기능	ADAS 시스템 중 2개 이상이 결합되어 운전자 지원 예) 차선이탈 방지 + 스마트 크루즈	특정지역, 구간 (고속도로)에서는 사람의 개입 없이도 주행 가능	사람의 개입 없이도 어느 곳이나 주행 가능

자료: 미 도로교통안전국 (NHTSA)

별첨자료 14

CTS 지하 터널 운행 단면



출처: CTS

별첨자료 15



양방향 원격 조작 시스템





“통일미래”를 준비하다

IV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수상 수기

최우수상 -

강원공유도를 통한 한반도 균형 발전 - <DIA정책>

분단을 넘어! 평화의 너머! 하나 되는 한반도를 꿈꾸며~~

조혜은

안녕하세요. 넘어너머 팀 대표 조혜은입니다. 넘어너머라는 팀명은 분단을 넘고 평화의 너머에 있는 한반도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저희는 작년부터 통일모의국무회의 때부터 준비해온 팀입니다. 작년에는 본선에서 탈락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이번 7회 대회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어 더 없이 뿌듯합니다. 이번 연도에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내용을 보완하고 더욱 열과 성을 다해 발표 연습을 했습니다. 낮에는 같은 과 학생들이라는 특성을 살려 학교에 모이고 밤에는 화상회의로 회의하며 밤낮 할 것 없이 성실히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예선을 거쳐 결선에 진출하였고 더없이 값진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강원공유도 <DIA 정책>'은 남한의 관점에서는 경부선과 서해안 일대에 집중된 인프라를 강원지역으로 확대하고, 한반도적 관점으로는 추후 통일 한국의 척추가 될 강원도를 남북이 공유하여 연합단계에서 통일로 가는 과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자 만들어 낸 정책입니다. 즉 남북의 평화변영, 한반도의 국토 균형개발, 통일 한반도 준비과정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대회 모든 부분을 온라인으로 진행하여 아쉬움이 많이 남았는데, 이번에는 워드 코로나가 실시됨에 따라 예선과 결선을 오프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대회 진행에 신경 써 주신 주최 측과 예선부터 결선까지 고생해주신 심사위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결선 때 함께 통일 한반도를 꿈꾸는 한반도미래연구회, 평양남면, 하랑 팀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까지 빛나준 우리 팀원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통일 한반도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북한학도로 거듭나

언젠가는 강원공유도 <DIA 정책>이 현실에서 논의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넘어 너머는 앞으로도 분단을 넘고, 평화의 너머로 향하기 위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수상 -

창조를 통한 포용 창조문화도시 사리원(4異ONE)

함께여서 가능했던 우리의 결실, 남북도 함께 평화의 결실, 통일의 결실을 맺기를

여민구

안녕하세요. 한반도미래연구회팀의 대표 여민구입니다. 먼저 제7회 통일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모두는 이 경연대회를 통하여 평생 잊지 못할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회가 끝난 지금의 시점에서 돌아보았을 때, 지금 이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저희 팀은 이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첫 단추인 팀원을 모집하는 때부터 대회 결선을 치르는 당일까지 정말 많은 고비들을 겪었습니다. 팀 사정상 1인 2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으며, 심지어 그 안에서도 여러 차례 역할 변동이 있는 상태로 대회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팀장과 함께 열정적으로 자신의 역할 이상으로 수행해주고 심지어 제 부족한 점까지 채워준 팀원들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대회 경연 순서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 시상 순서에서 우수상 수상팀이 발표되었을 때 대회를 준비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처음 모집할 때 애썼던 저희 모습부터 대회 당일 자유토론 시간에 마지막까지 하나라도 더 질문하기 위해서 팀원 한명한명이 최선을 다해 종을 치는 모습까지. 비록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이었지만, 이 대회를 통해 “하면 된다”라는 정신이 더 굳건해졌으며, 협력과 배려라는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미래연구회”라는 팀이름처럼 남한만의 미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미래를 꿈꾸며 달려왔던 저희가 이 대회를 통해 값진 경험을 하고, 결실을 맺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 경험과 결실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차원 높은 단계에 오르는 씨앗이 되어 한반도에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 대회를 통해 팀원들이 함께 하나되어 준비함으로써 얻은 “하면 된다”라는 정신으로 포기하지 않고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너무나도 큰 도움을 주셨던 작년 한반도미래연구회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다음 세대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수상 소감을 마칩니다.

장려상 -

‘3P 정책’과 ‘新구본신참 정책’

우리가 꿈꾸는 통일의 밑거름

이정찬

안녕하세요. 하랑팀의 대표인 이정찬입니다. 저희는 이번 대회를 정말 급박하게 준비했었습니다. 팀을 결성하고 서류 제출까지 단 2주도 남아 있지 않았었습니다. 때문에, 그만큼 팀원들도 더욱 자신의 시간을 쪼개고, 밤늦게까지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어떤 정책을 만들지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동안 통일모의국무회의에 나온 안건들이 모두 북한의 개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우리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해보자는 의견으로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치안정책인 ‘3P 정책’과 외교정책인 ‘新구본신참 정책’이었습니다.

솔직히 서류접수했을 때부터 반신반의하였습니다. 그동안 통일모의국무회의의 수상작들과는 조금 달랐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기우라는 듯이 서류합격을 하였고, 저희는 예선이 끝일 수 있으니 후회 없게 마치자며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선 경연을 치르고 난 뒤, 심사위원님들의 피드백을 듣고는 이전 정말 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제 기우였고 결국 결선까지 진출을 하여 후회없이 대회를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 다시 생각해 보면 대회 내내 순간 순간이 떨렸고, 진출 연락을 받을 때마다 기뻐하던 팀원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대회 기간을 돌이켜 보면 많은 일들이 떠오르고, 하고 싶은 말들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이번 수상 후기를 작성하며 가장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한 팀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는 제의에 흔쾌히 수락해 준 문성이와 록신이, 군 전역하자마자 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서울과 전주를 오가며 고생해준 태현이, 학보사만으로도 정말 힘들 텐데 매번 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의를 항상 웃으며 임해준 세진·유진·준혁이, 갑작스러운 합류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해준 원석이... 이 모든 팀원들이 있었기에 하랑팀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장려상을 수상할 수 있

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팀원들 모두 고생 많았고 이 모든 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부족함이 많던 이 팀장을 믿고 함께해 준 팀원들에게 미안하고 정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위원분들과 행사 진행을 도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결선까지 함께한 넘어너머팀, 한반도미래연구회팀, 평양냉면팀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통일모의국무회의를 통하여 많은 생각들을 교환하고 토론의 장이 되어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건설적인 국무회의로 우리가 꿈꾸는 통일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보운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되던 2018년, 남과 북의 정상은 함께 평양냉면을 먹었습니다. 평양냉면 팀은 그때 우리를 감쌌던 설렘을 기억하며, '통일 한반도의 희망찬 미래'라는 공통된 꿈을 갖고 모였습니다. 서로 다른 학교, 다른 학과에 소속된 학생들이지만 우리 거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바라는 마음만은 같았습니다. 우리는 최선의 안건을 상정하기 위하여 밤새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 치열한 고민의 끝에 우리는 '2045 늘푸른 프로젝트'를 고안하였습니다.

2045 늘푸른 프로젝트는 남과 북의 인프라 격차를 상쇄함과 동시에 환경을 보전하는 국책 사업입니다. 지역 균형 개발과 사회 자본 구축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 환경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지털 정보 기술과 환경 보전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에 선 생태 도시 건설을 기획하였습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의 생태계를 품어 성장시키는 자연처럼, 2045 늘푸른 프로젝트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여 한반도 내 다양한 가능성을 품을 수 있도록 설정하였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환경 이슈, 디지털 기술 등 여러 쟁점에 관해 공부하고 토의하며 많은 성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식의 지평이 확장되었고, 협동의 힘을 믿게 되었으며,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반도의 미래를 위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이 놀랍기도 했고, 정치학도로서 많은 자극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모로 제게 좋은 기회를 주시고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도 원만한 대회 진행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기까지 정말 많은 회의와 공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팀원 모두가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해 주었기에 원만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학기 중에 진행된 대회였으므로 상당히 바빴을텐데도 불구하고 싫은 기색 하나 비치지 않고 노력해 준 팀원 모두에게 많이 고맙습니다. 수상 여부에 상관없이 우리가 함께 공들여 준비한 모든 것이 빛나고 소중합니다. 저를 따라서 부단히 노력해 준 우리 태이, 시연, 다현, 수현, 남기, 담미에게 고맙습니다. 대회는 여기서 마치지만,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한반도가 정말 통일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맞이 할 그날까지 열심히 응원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미래”를 준비하다



V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현장(대면 경연)



예선 진행 현장



결선 진행 현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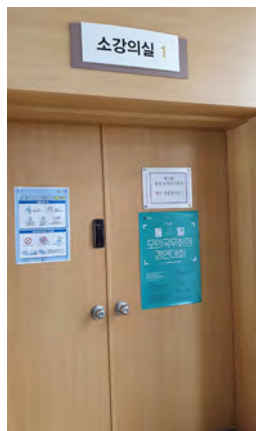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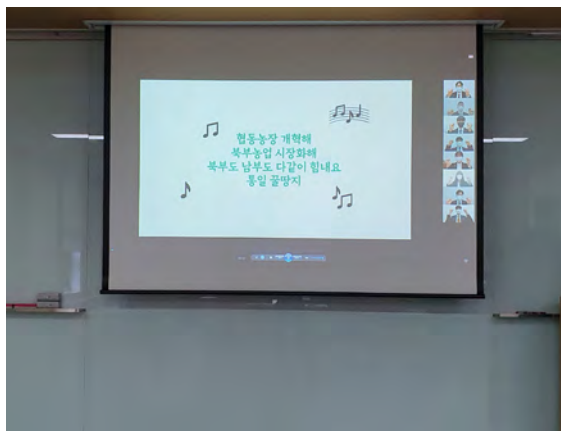
“통일미래”를 준비하다

VI

통일 모의국무회의의 경연대회

현장(비대면 경연)

예선 진행 현장



결선 진행 현장



최우수상 시상 우수상 및 장려상 시상



<붙임1>

국민대학교 한반도미래연구원 현황

연혁

- '15.09.01 국민대학교의 건학이념인 '독립운동의 정신' 즉, 애국정신을 통일운동 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한반도미래연구원」 설립
(초대원장: 김주현 前현대경제연구원장, 前파이낸셜뉴스 사장)
- '15.10. 『제1회 전국대학생통일토론행회』 개최
- '16.3. 한반도미래연구원 개원
- '16.5. 제1기 통일콜로키움 개최
- '16.5. 서울통일교육센터 선정 및 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20기 출범
(서울통일교육센터·통일교육위원 서울협의회 20기~22기 6년간 운영)
- '17.4. 홍양호 제2대 원장 취임
- '20.4. 박정원 제3대 원장 취임
- '22.3. 이석한 제4대 원장 취임

목적 및 주요사업

- 설립목적
국민대학교의 건학이념인 '독립운동의 정신' 즉, 애국정신을 '통일운동정신'으로 계승·발전시키고, 통일 과정에서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통일 후 당면할 과제들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연구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담당
- 주요사업
 - 북한·통일 연구 범주의 확산 및 학제 간 연구의 활성화
(제1~11기 통일콜로키움 개최)
 - 대학 사회 내 평화의식 확대 및 평화·통일을 주제로 한 토론문화 선도
(제1~7회 대학생통일토론행회 개최)
 - 통일교육사업 및 통일문화축제 행사
(통일문화축제 40건 이상 주관, 2016~2021년 서울통일교육센터 운영, 2022~2025년 통일교육선도대학 선정)
 - 통일·평화·안보 관련 학술 교류행사
(2016~2021년 60건 이상의 학술행사 주관 및 후원)

통일 모의국무회의 길라잡이

발행일 : 2023년 3월 15일

발행처 : 국민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 한반도미래연구원

02707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77

전화 (02) 910-6449

한반도미래연구원 홈페이지 www.fki0330.kr

2023
통일 모의국무회의 경연대회
길라잡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통일 모의국무회의 가이드북



국민대학교

통일교육사업단
한반도미래연구원